

제37회 한국아동문학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 아동문학연구의 확장1 - 유아 아동문학



- 일시: 2023년 4월 8일 토요일 14:00~18:00
-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연구강의동 스마트강의실 301호
- zoom: <https://us02web.zoom.us/j/82086238533>
- 주최: 한국아동문학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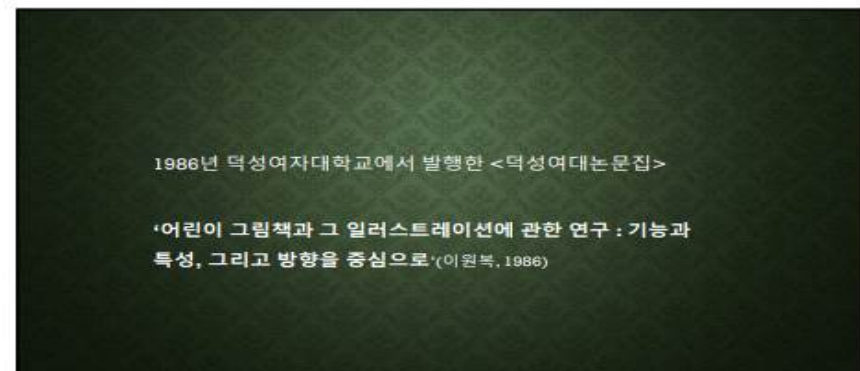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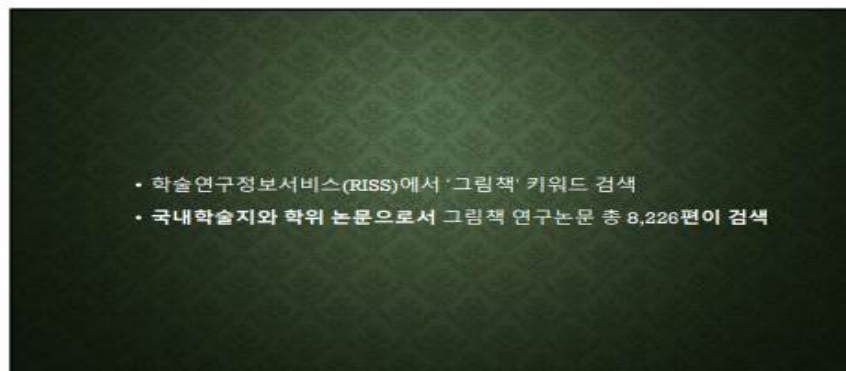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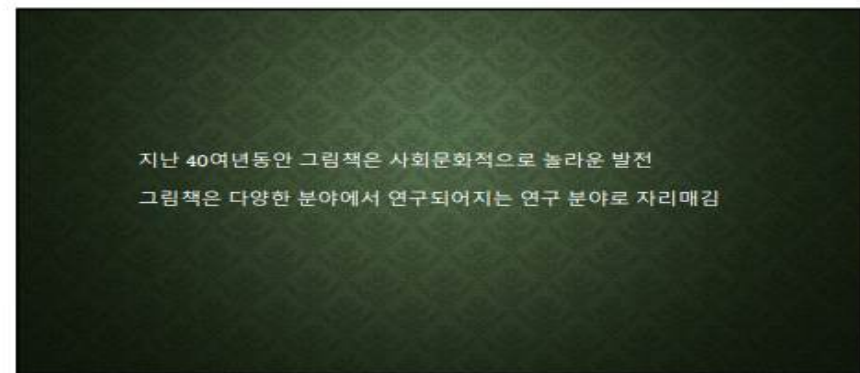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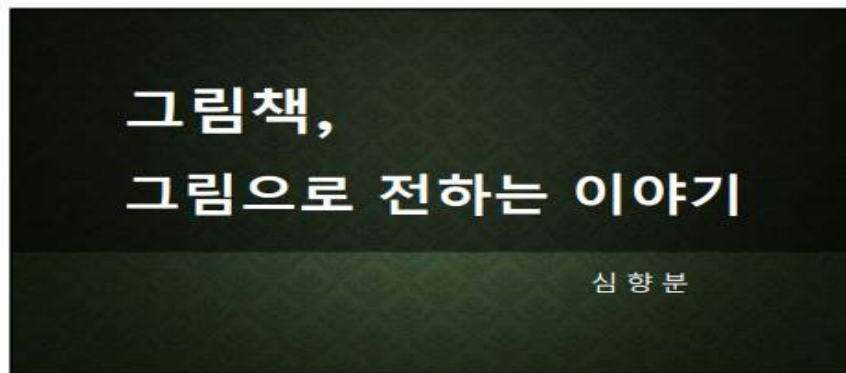
**제37회 한국아동문학학회 학술발표대회**  
**: 아동문학연구의 확장1 - 유아 아동문학**

시간	발표 내용		
14:00~14:10	개회사: 최경희(회장, 전주교대)		사회:지상선 (성균관대)
14:10~14:50	주제 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책, 그림으로 전하는 이야기</li> <li>□ 심향분(KBBY)</li> </ul>	
14:50~15:00	휴식시간		
15:00~15:30	기획 주제	<b>[주제1] 『매일신보』 '애기나라'를 통해 본 유년동화의 가능성</b> □ 발표: 이미정(건국대)      □ 토론: 박주혜(한양대)	사회: 권애영 (한국외대)
15:30~16:00	발표	<b>[주제2] 그림책의 시각적 경험과 예술화 연구</b> □ 발표: 정영숙(전남대)      □ 토론: 배다인(조선대)	
16:00~16:10	휴식시간		
16:10~16:40	기획 주제	<b>[주제3] 문학교육 관점에서 바라본 영아 그림책의 미학적성</b> □ 발표: 김태호(춘천교대) · 최종윤(한국교원대)      □ 토론: 진솔(광주교대)	사회: 방은수 (서울교대)
16:40~17:10	발표	<b>[주제4] 유·초 이음교육을 위한 '학교' 그림책 내용 분석</b> □ 발표: 김호(경인교대) · 김현경(경인교대)      □ 토론: 장원호(중앙대)	
17:10~17:30	종합토론 및 윤리교육		사회: 김경희 (가천대)
17:30~18:00	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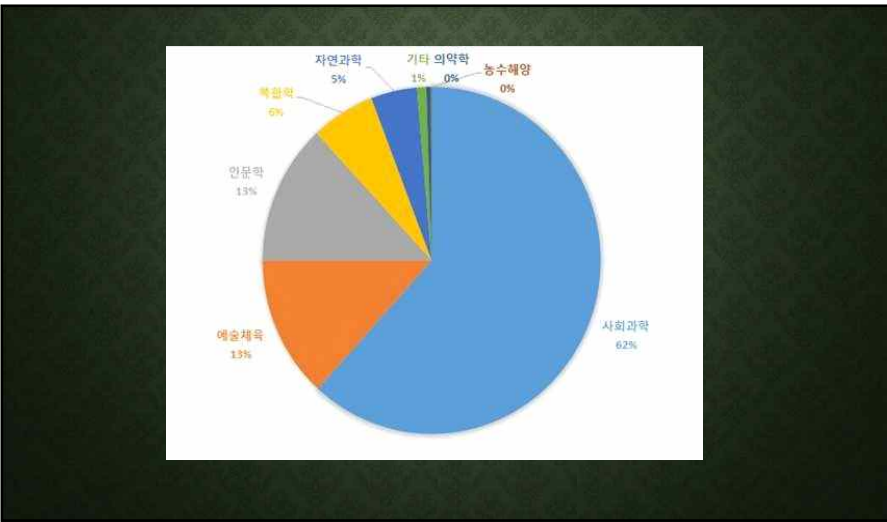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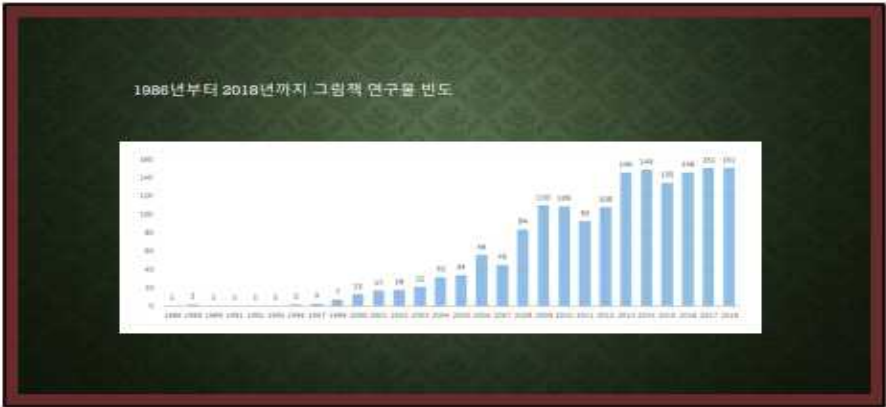
[주제 강연]

## 그림책, 그림으로 전하는 이야기

심향분(KBBY)



- 1986년~
  - 출판 저널
- 1995년
  - 연구자들의 연구 모임 결성 '어린이문학연구회'
  - [한상그림책으로의 여행] 출간
- 1999년
  -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 제 1차 학술대회 "그림책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
- 2000년
  - 제2차 학술대회 "정보그림책의 이해와 분석"
  -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창간호



문학이란?  
언어로 표현한 예술

문학 LITERATURE

아동문학 CHILDREN LITERATURE

유아문학 YOUNG CHILDREN LITERATURE

그림책 PICTUREBOOK

▪ 그림책 picture book

글, 그림, 디자인

- 글들은 그림 없이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다.
- 그림 없이는 이야기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다.
- 그림은 글에 담겨있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Barbara Bader(1976)는 “그림책은 텍스트, 일러스트레이션, 총체적인 디자인이며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인 기록물이다. 예술 형식으로서 그림책은 그림과 글의 상호의존성, 양쪽 페이지가 동시에 보이는 것,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는 연출에 의존한다.”

▶ 그림책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무엇을 읽어내는가의 방향성을 제시

- 시각적 서사
- 그림의 예술성
- 페리텍스트, 디자인적 요소의 의미
- 그림의 예술성에 집중하는 국제상



## BIB는

- 1967년 1회 BIB 개최

## BIB는

- 1967년 1회 BIB 개최
-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IBBY)와 유네스코의 후원

# BIB는

- 1967년 1회 BIB 개최
-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IBBY)와 유네스코의 후원
- 출간된 그림책의 원화의 예술성에 초점

# BIB는

- 1967년 1회 BIB 개최
-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IBBY)와 유네스코의 후원
- 출간된 그림책의 원화의 예술성에 초점
-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2년마다 열리는 국제 비엔날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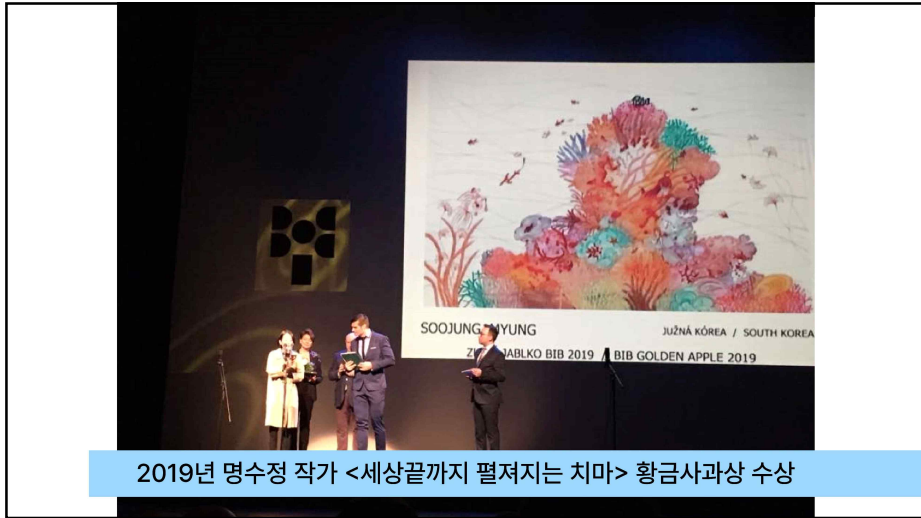




2021 BIB 전시



대상, 황금사과상, BIB상패상, 어린이심사위원상 등 시상



2019년 명수정 작가 <세상끝까지 펼쳐지는 치마> 황금사과상 수상



2021년 이명애 작가 <내일은 맑겠습니다> 황금사과상 수상

한국 그림책 수상 실적

2021년 황금사과상 『내일은 맑겠습니다』 이명애

2019년 황금사과상 『세상 끝까지 펼쳐지는 치마』 명수정

2017년 황금사과상 『하이드와 나』 김지민

2015년 프라그상 『플라스틱 섬』 이명애

2013년 황금사과상 『코끼리 아저씨와 100개의 물방울』 노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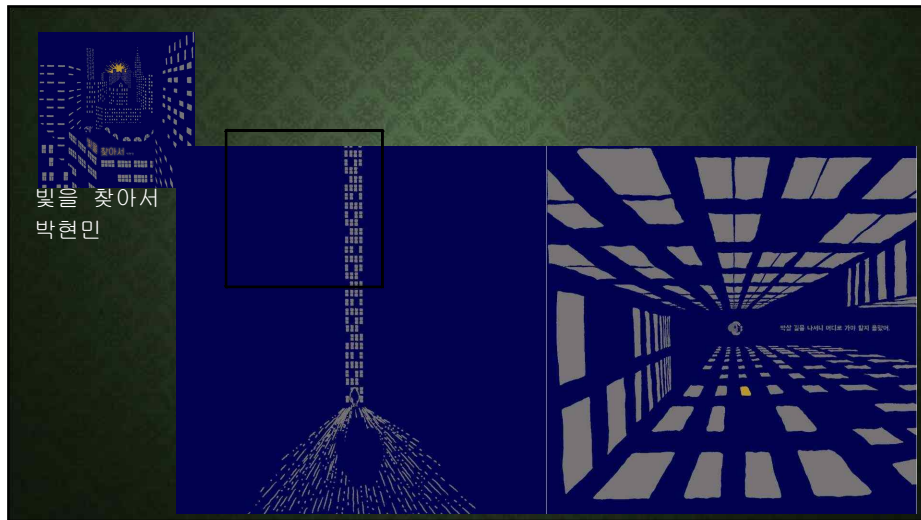
어린이심사위원상 『양철곰』 이기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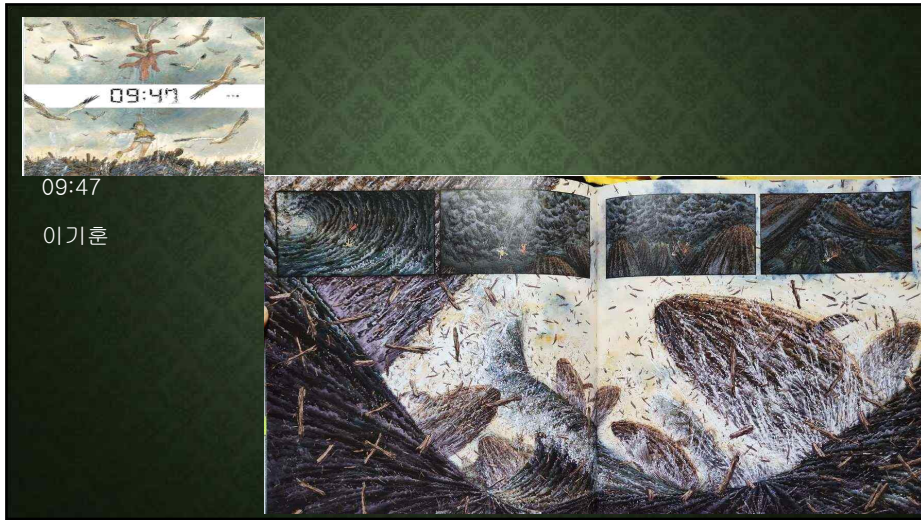
2011년 그랑프리 대상 『달려, 토토』 조은영

황금사과상 『어느날』 유주연

2007년 어린이 심사위원상 『영이의 비닐 우산』 김재홍

2005년 황금사과상 『새가 되고 싶어』 한병호





그림언어 읽기를 통한 이야기 구성하기를 요구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이야기하는 매체

그림책은 어떻게 이야기를 전하는가

글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림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글의 역할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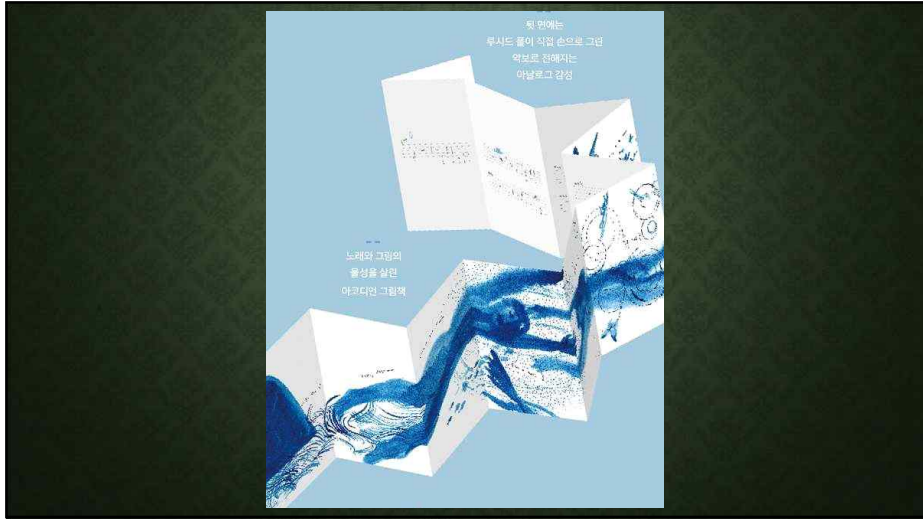
우리는 무엇을 통해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가?

인물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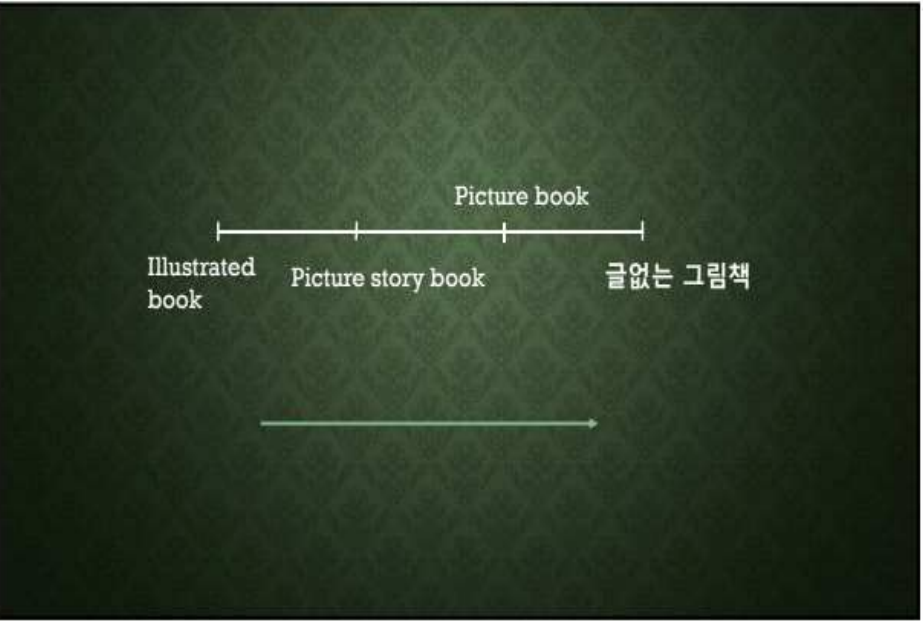
구성                      주제

**파라텍스트의 역할**  
- 면지, 표지, 자켓 등

**판형, 서체, 종이 등 디자인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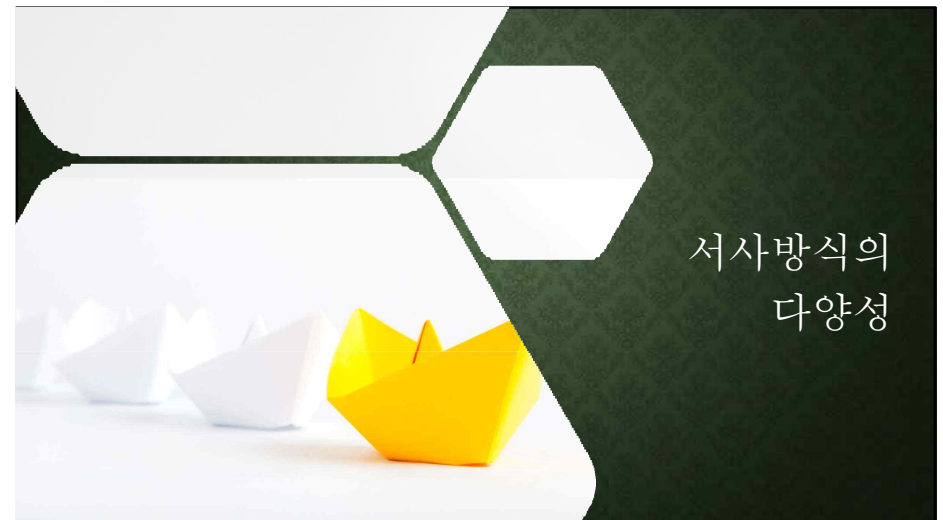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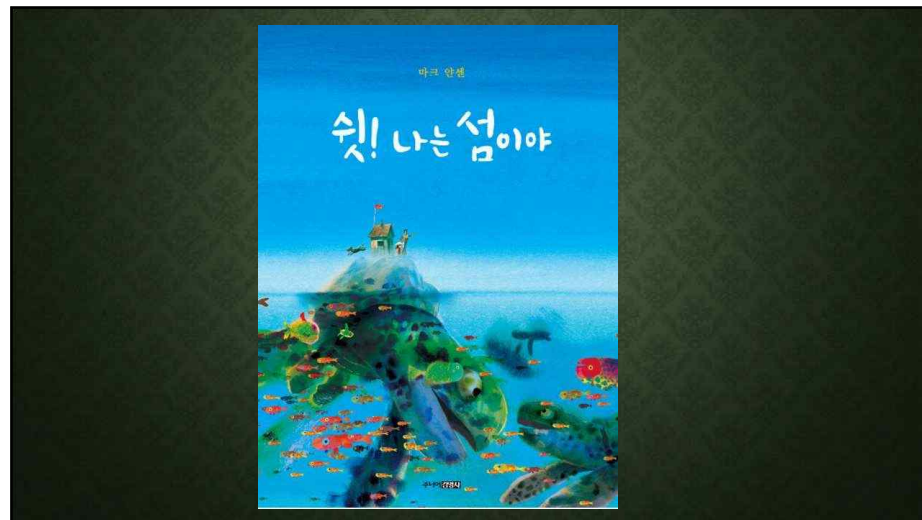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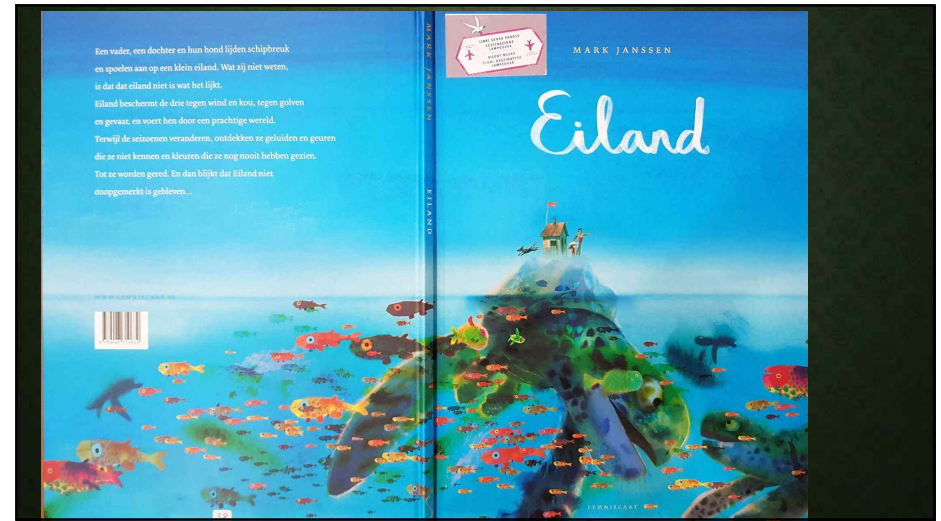


# 그림책, 글이 사라지다



- 글없는 그림책을 통한 난민 어린이들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 2012년 시작
- 언어적 장벽을 넘어 그림으로 전하는 이야기





## 일반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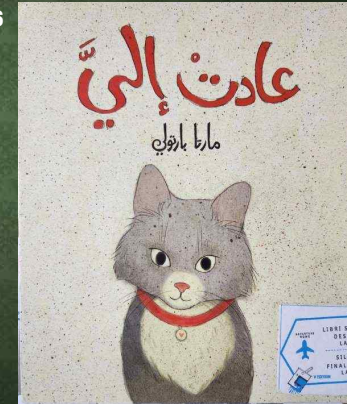
63  
누가 오나요?



## 릴레이 서사

66

- 장소의 이동, 시간의 흐름 따라 새로운 인물 등장 독자가 구성하며 따라 가는 이야기



## 시간

- 시간의 흐름 전생애를 다루다.
- 성장, 부모와 자식



## 진주의 여행

<진주의 여행>

안느-마르고 램스타인, 마티아스 아르귀

웅진주니어





불특정 서사  
-찾아 구성하기

55 마라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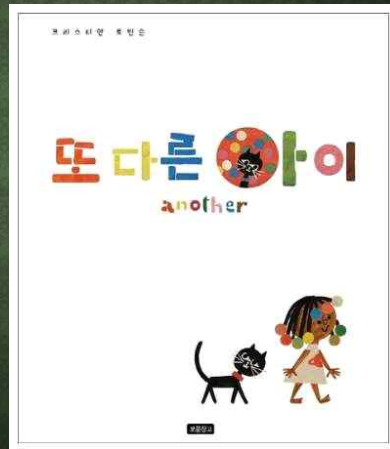
56 세라핀의 생일

44 찾아봐!



KISS  
조선헌  
SOME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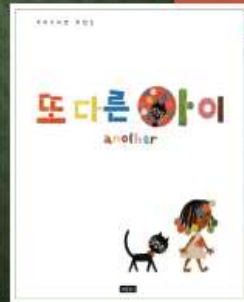
책을 보는 방향



주제의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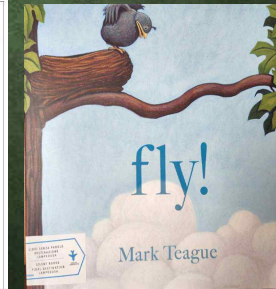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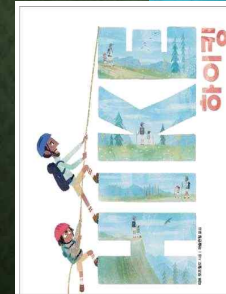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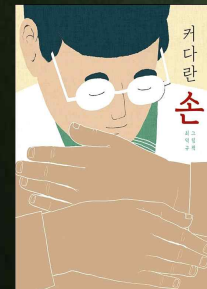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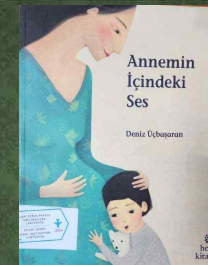
자아찾기

11 길을 잃다



72

가족



73

이웃 -소통 나눔 배려

15 지하철



5 헬렌의 새



63 누가 오나요?



66 어디있니?



상상 그리고 이야기

1 허공의 빛



4




23 박물



주제성 -환경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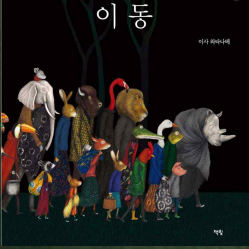


33 빙산




전쟁, 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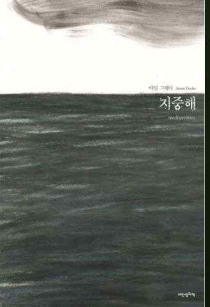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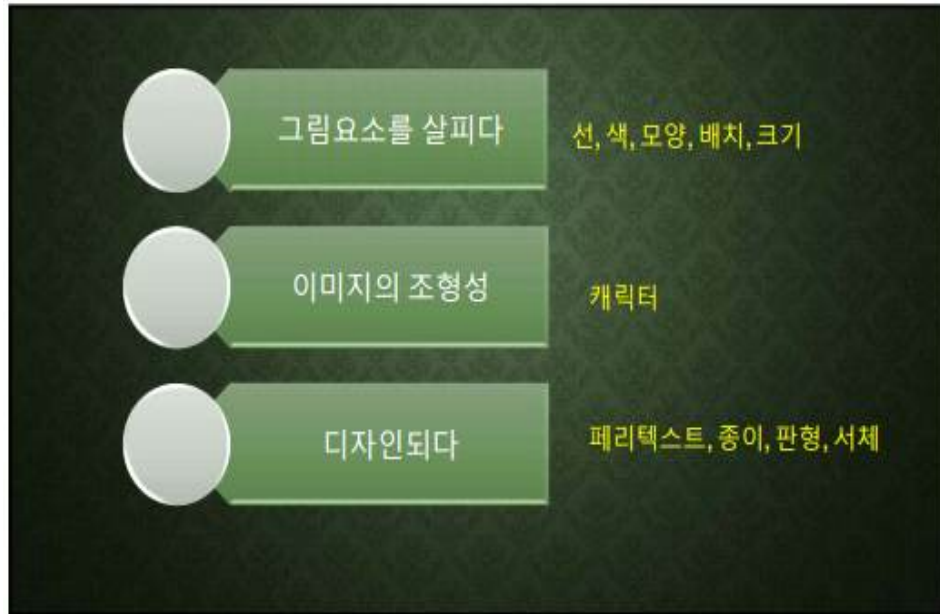


제노테야



지중해





나가며

그림책은 다양한 연령층의 독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복잡한 의사소통 형식을 지니고 있는 소통적 매체

## 『매일신보』 「애기나라」를 통해 본 유년동화의 가능성

이미정(건국대학교 조교수)

— < 목 차 > —

- I. 머리말
- II. 『매일신보』 「애기나라」 현황
- III. 「애기나라」를 통해 본 유년동화의 가능성
  - 1. 표현적 요소
  - 2. 내용적 요소
    - 1) 자연친화적 유년 아동
    - 2) ‘유년 아동 우위’ 이미지
    - 3) 유년 아동의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
- IV. 맺음말

### I. 머리말

이 연구는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던 유년꼭지 「애기나라」를 분석하여 유년동화의 핵심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년동화는 ‘유년’이라는 시기의 모호성으로 인해 그 특징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곧 유년동화 연구와 창작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아동문학이 아동이라는 시기와 연령에 주목하여 성립되는 만큼 이를 세분화한 유년문학 역시 필요하다. 특히 유년은 인지적·정서적 등의 측면에서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1930년대 유년동화 창작이 활발했던 것은 유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인식한 결과기도 했다. 그러나 그 특징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국내 유년문학 관련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작가 중심의 연구다. 여기에는 이태준과 현덕 유년동화 연구가 대표적이다.<sup>1)</sup> 둘째, 일간지 등에 나타난 근대

1) 원종찬, 「현덕 동화 연구: 일제시대의 생활동화 ‘노마’ 연작에 관해」, 『아침햇살』 여름호, 아침햇살, 1996; 김화선, 「이태준의 초기 아동문학 작품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50권, 한국언어문학회, 2003; 「이태준의 아동 서사물 연구」, 안미영, 『개신어문연구』 제29집, 개신어문학회, 2009; 박주혜, 「이태준과 현덕의 유년동화에 나타난 아동의 구현 양상 연구」, 『동화와번역』 제27집, 동화와번역연구소, 2014; 방재석·김하영, 「현덕 유년동화의 놀이 모티프에 나타난 현실 인식 -노마 연작을 중심으로」, 『동화와번역』 제30집, 동화와번역연구소, 2015; 이미정, 「1930년대 유년생활동화에 나타난 시선의 의미화: 이태준, 박태원, 현덕의 작품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63호, 한국비평문학회, 2017; 이미정, 「현덕 유년동화에 나타난 ‘연작성’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8집, 현대문학이론연구학회, 2019.

‘유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연구다.<sup>2)</sup> 마지막으로 유년문학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 정리한 논문이 있다.<sup>3)</sup>

이 글에서는 1940년 『매일신보』 「애기나라」가 다른 유년꼭지 『조선일보』 「우리차지」, 『동아일보』 「애기네판」과 비교하여 서사의 성격을 잘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유년동화의 핵심적 특성을 보여 주고 있을 것으로 전제하고, 작품 분석을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1930년대 대표적인 일간지 수록 유년꼭지 『조선일보』 「우리차지」, 『동아일보』 「애기네판」과 연계한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현재덕과 이주훈 등과 같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작가군을 발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년동화의 핵심적 요소를 제시하여 유년동화 연구와 창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매일신보』 「애기나라」 현황

『매일신보』 「애기나라」는 1940년 2월 26일부터 「가정」면에 연재되었다. 이전에는 ‘동화’라는 명칭의 꼭지에 현재덕 등이 작품을 수록하였으나, 어린이 지면이었고 활자 크기가 작은 점을 고려했을 때 유년 아동보다 상위 연령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1940년 2월 26일부터 5월 23일까지 ‘애기나라’라는 꼭지명 아래 약 4개월 동안 67편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조선일보』 「우리차지」와 『동아일보』 「애기네판」은 대체로 글·그림 작가가 불분명한 데 비하여 「애기나라」는 글·그림 작가를 매 회 빠짐없이 제시하고 있다. 가장 많은 작품을 쓴 작가는 이주훈이다. 32편을 써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현재덕이 19편, 윤복진이 14편, 박인범이 2편을 썼다. 이 중 이주훈과 현재덕은 글과 삽화를 함께 신기도 했다.

이주훈은 1919년 출생으로 필명은 아석(啞石)이다. 1938년 11월 13일자 『매일신보』에 발표한 동화 「순희와 쌍아」가 첫 아동문학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sup>4)</sup> 「가톨릭소년」과 『유년화보』에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아동문학 활동을 이어나간다. 이주훈은 1940년 신홍학교에 근무하면서 동극 「새길」이 가작으로 당선되는데, 이후 활발한 문학적 행보를 보인다. 바로 이 시기 「애기나라」에 연재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주훈이 「애기나라」에 실었던 작품들은 그의 본격적인 아동문학과 아동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 준다.

2) 이미정, 「동아일보 「애기네 판」에 나타난 유년 이미지」, 비평문학 제72집, 한국비평문학회, 2019; 이미정, 「『조선일보』 「우리차지」에 나타난 유년 이미지 -인물 모티프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88집, 국제어문학회, 2021.

3) 정진현, 「1930년대 유년의 발견과 ‘애기그림책」, 『동화와번역』 제26집, 동화와번역연구소, 2013; 정진현, 「1930년대 유년(幼年)의 발견과 ‘애기그림책」,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16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5; 정진현, 「1930년대 『동아일보』 유년(幼年)동화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19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6; 정진현, 「아동문학의 장르 분화와 유년문학의 등장: 1930년대 미발굴 유년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동화와번역』 제34집, 동화와번역연구소, 2017; 이미정, 「1930년대 유년잡지 유년중앙과 유년특성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제21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7; 박인경, 「보육일안(保育日案)으로 살펴보는 유치원 담화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2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8; 박인경, 「일제강점기 유치원 보모와 유년문학의 성장」,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4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9; 박인경, 「1930년대 유년문학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인하대 박사논문, 2021.

4) 이주훈의 작가 약력에 대해서는 「매혹적인 상징의 세계로 초대하는 이주훈의 동화 세상- 「햇님과 금붕어」에 나타난 이주훈의 문학 세계」(2019)를 참고하였다.

19편의 작품을 수록한 현재덕은 현덕의 동생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1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동화를 쓰기도 했으나 대체로 아동화에 더욱 주력하였으며 월북 후에는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주요 잡지와 일간지에 현재덕의 삽화가 독점해서 실리다시피 했다고 한다. 「애기나라」에서도 현재덕은 대체로 글과 그림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소년문예단체 ‘기쁨사’ 일원이었던 윤복진은 14편의 작품을 실었다. 경상북도 대구에서 1907년 태어나 1991년 세상을 떠났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까지 꾸준한 작품을 창작했고, 동요와 동화, 평론까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2편의 작품을 쓴 박인범은 강원도 문천에서 1908년 출생했다. 필명은 박두루미이다. 1940년 라디오 프로그램에 김복진과 김광호 등과 함께 참여했으며, 어린이날전국준비위원회 교섭부를 맡기도 했다. 『어린이나라』 발간 기념 구연동화회와 김영일의 동시집 『다람쥐』 출판기념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sup>5)</sup> 1938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에서 동화를 발표했으며 해방 이후에도 『자유신문』에 작품을 실었다.

67편 중 삽화가가 표기되지 않은 작품은 12편이다. 이 가운데 4편의 작품은 삽화가의 이름은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화풍이 동일하고 현재덕은 반드시 글과 그림을 같이 창작했기 때문이다.<sup>6)</sup> 따라서 8편을 제외한 59편에 대한 삽화가는 확인할 수 있다. 삽화가는 현재덕(19편), 윤희순(16편), 박성규(12편)<sup>7)</sup>, 남훈(3편), 이승만(2편), 이주훈(2편)이다. 윤희순은 『조선미술사연구』를 집필한 평론가이자 화가였다. 1932년 교사를 관두고 『매일신보』 학예부에 들어간다. 이때 『매일신보』와 인연을 맺게 되고 「애기나라」의 삽화와 같은 면에 수록된 일반 소설의 삽화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성규는 일본 문화학원 출신의 화가이다.<sup>8)</sup> 귀국 후에는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기도 했으며 이때 파스텔화를 자주 선보였다. 해방 후에는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산하 조선미술건설본부와 좌파와 무소속 성향의 작가들로 결성된 조선조형예술동맹에 참여했다.

이승만은 『매일신보』 학예부 기자로 소설 삽화를 담당했다. 당시 『중앙일보』의 노수현과 『동아일보』의 이상범과 함께 ‘삽화계 3천왕’으로 불릴 정도로 실력을 인정 받았다. 현재덕과 이주훈, 그리고 이력이 잘 확인되지 않는 남훈을 제외한 윤희순, 박성규, 이승만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탁월한 삽화가들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애기나라」에 상당한 정성을 쏟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할 사실은 이들 간의 관계이다. 현재덕은 윤희순이 교사 시절에 제자로 그에게 그림을 배웠다고 한다. 앞서 설명했던 박인범이 『어린이나라』 창간 기념으로 개최했던 구연동화회에는 현재덕도 참여했다. 그리고 윤희순, 박성규, 이승만은 1946년 결성된 삽화가와 만화가 모임 소목회 회원이 된다. 물론 이러한 친분 관계가 「애기나라」를 기점으로 맺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지속적으로 친분을 유지해갈 수 있는 ‘공감대’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애기나라」를 지속적으로 연재하는 데 있어 공

5) 박인범에 대한 설명은 『한국아동문학비평사를 위하여』(2021)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6) 이주훈은 처음 세 편은 글·그림을 같이 창작했으나 나중에는 삽화를 그리는 이가 따로 있었다. 그러나 현재덕 작품은 글과 그림 모두 현재덕 본인이 맡았다. 1940년 5월 24일부터는 「애기나라」 대신 장편동화 「장난감나라」가 연재되는데 이때 글은 이주훈이 그림은 현재덕이 맡는다.

7) 1940년 4월 16일자에는 박성규라고 나와 있으나 오식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역시 박성규로 판단하여 편수에 포함하였다.

8) 일본 문화학원은 ‘일본 최고의 자유주의자’로 꼽히는 니시무라 이사쿠가 1921년 설립한 교육기관이었다. 이준섭 등도 문화학원에서 수학한 바 있다. 일본 문화학원에 대해서는 한겨레신문의 「(21)문화학원과 자유주의 예술교육」(2017년 6월 1일자)를 참고했다.

정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애기나라」 연재가 끝난 직후 이주훈과 현재덕이 각각 글과 그림을 맡아 짝을 이루어 「작난감 나라」라는 장편동화 연재를 시작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애기나라」는 앞서 선보인 『조선일보』 「우리차지」와 『동아일보』 「애기네판」과 비교하여 세련된 서사 구조와 삽화가 돋보인다. 또한 여러 작가들이 참여했음에도 ‘유년동화’라는 일관되게 장르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어, 「애기나라」의 ‘정체성’을 잘 보여 준다. 『조선일보』 「우리차지」와 『동아일보』 「애기네판」이 다면적인 ‘유년’의 이미지를 보여 주고 있다면 「애기나라」는 더욱 서사적 요소에 주목해 유년동화의 핵심적 요소들을 제시해 준다. 다음 장에서는 「애기나라」의 작품들을 표현적 요소와 내용적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여 유년동화의 핵심 요소를 드러내보고자 한다.

### III. 「애기나라」를 통해 본 유년동화의 가능성

#### 1. 표현적 요소

유년동화의 가장 큰 물리적 특성은 큰 활자와 짧은 분량이다. 이는 유년 독자를 의식하고 있다는 명확한 표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사의 단순함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이다. 즉 짧은 분량을 통한 내용과 주제의 전달, 더 나아가 문학적 형상화까지 추구하는 것이 유년동화의 장르적 목표라 할 수 있다. 『매일신보』의 「애기나라」 역시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다만 글자 크기는 다른 기사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는 한 칸에 글과 그림이 함께 들어가야 하는 제한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애기나라」는 『조선일보』 「우리차지」와 『동아일보』 「애기네판」과 비교하여 서사가 뚜렷한 글을 수록하고 있어 일정 정도의 문장이 필요했다. 「애기나라」에 수록된 67편의 작품의 문장은 평균적으로 약 6.9개였다. 가장 긴 문장은 14개, 가장 짧은 문장은 4개였다. 이때 복문도 상당 부분 발견된다.

1940년 4월 30일자 「언니 미워」<sup>9)</sup>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서울 아저씨가 사다준 그림책을 나 몰래 가져다가 언니 책상속에 너쿠는 잠을쇠가 업서서 잠그진 못하구 거냥두면 내가 써내가갓스니까 그쓸줄몰르는 글씨루 쉼쉴둘하게 『○○ 속에 예비가 들었다』 이리케 책상 설합에다 써 부쳐냈서요.”라는 긴 문장은 일면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문장은 의외의 효과를 거둔다. 첫째, 운율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둘째, 마치 사고의 흐름대로 이야기하는 유년 아동의 말을 모사한 듯한 느낌을 준다. 「애기나라」에 연재된 많은 작품들이 복문과 긴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유아어’의 사용이 눈에 띈다. 윤복진의 「애기와 뚜뚜」<sup>10)</sup>에는 울고 있는 애기가 나온다. 엄마는 애기를 달래기 위하여 ‘뚜뚜’를 타고 집에 가자고 한다. 뚜뚜는 기차를 가리킨다. 이러한 유아어 사용은 유년동화라는 장르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유아어가 축약과 반복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문장의 특징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일반화와 유추 현상을 볼 수 있다는 데서는 유년 아동 특유의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한

9) 이주훈, 「언니 미워」, 『매일신보』 1940.4.30.

10) 윤복진, 「애기와 뚜뚜」, 『매일신보』 1940.4.9.

다.<sup>11)</sup>

## 2. 내용적 요소

### 1) 자연친화적 유년 아동

현재덕은 형인 현덕의 유년동화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인물과 소재 등에서 잘 나타난다. 「옹달샘물」<sup>12)</sup>에 나오는 노랑치마, 빨간치마, 파랑치마는 현덕의 「바람은 알건만」<sup>13)</sup>에 나오는 분홍 치마, 노랑 치마, 파랑 치마를 떠올리게 한다.

「바람은 알건만」	「옹달샘물」
분홍 치마, 노랑 치마, 파랑 치마, 초가집 문지방에 세 아이가 앉았습니다.	옹달샘 우물두덩에 노랑치마, 빨간치마 세 아이가 앉았습니다.

현재덕은 직접적으로 현덕 유년동화의 인물과 소재들을 차용한다. 노마는 만이로, 기동이는 귀돌이로 이름이 달라졌으나 만이가 주인공 격이며 귀동이가 부잣집 아이며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각각 현덕 유년동화의 노마와 기동이와 같은 역할을 보여 준다. 영이와 똥똥이는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주로 ‘자연’ 또는 ‘자연친화적 아동’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특별한 사건보다는 서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옹달샘물」에서는 노랑치마, 빨간치마, 파랑치마라는 세 아동이 나오지만 이들은 졸졸 쉬지않고 흐르는 샘물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이 물을 떠가도 쉬지 않고 흐르고 고이는 샘물을 통해 자연의 신비함을 느낀다. 아무말도 하지 않고 흐르는 샘물을 바라보는 아이들은 자연과 하나를 이룬다. 현덕의 「귀뚜라미」<sup>14)</sup>에서도 옹달 측대 밑에서 조용조용 혼자서 우는 귀뚜라미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귀뚜라미를 닮아가는 노마와 영이, 똥똥이가 나온다.

이와 같은 유사성은 「작은어머니」에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 작품은 현덕의 「조그만 어머니」<sup>15)</sup>와 매우 흡사하다. 두 작품 모두 어머니의 부재로 누나가 동생을 돌본다는 이야기이다. “옥히는 작은 어머니입니다.”와 “파랑 치마 영이는 조그만 어머니입니다.”라는 글을 맺는 마지막 문장도 동일하다. 이때 어머니 부재의 이유는 차이가 난다. 현재덕은 나들이로, 현덕은 거리로 나가 과일을 팔기 위해서로 설명하고 있다. 현덕은 그의 작품에서 유년의 세계와 계급 간 갈등과 광복의 염원이라는 층위를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덕은 서정성 짙은 작품을 창작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덕의 「새끼기차」<sup>16)</sup>와 「세발자전거」<sup>17)</sup>는 각각 현덕의 「새끼전차」와 「토끼와 자동차」, 「물딱총」등과 연관성이 강하다. 현덕의 「새끼전차」와 현재덕의 「새끼기차」는 제목 그대로 새끼줄 안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들어가 기차를 탄 것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노

11) 유아어와 관련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였다. 이신미, 「유아어의 특성과 발달에 관한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1989.

12) 현재덕, 「옹달샘물」, 『매일신보』 1940.2.26.

13) 현덕, 「바람은 알건만」, 『소년조선일보』, 1938.5.29.

14) 현덕, 「귀뚜라미」, 『소년조선일보』, 1938.9.11.

15) 현덕, 「조그만 어머니」, 『동아일보』, 1939.1.16.

16) 현재덕, 「새끼기차」, 『매일신보』 1940.3.16.

17) 현재덕, 「세발자전거」, 『매일신보』 1940.3.23.

는 놀이를 보여 준다. 현덕의 「새끼전차」에서는 물땀총을 혼자서만 가지고 논 기동이를 태워주지 않음으로써 놀이와 함께 ‘응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재덕의 「새끼기차」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만이, 영이, 귀돌이는 골목 안에서 큰 행길로, 다시 골목으로 다니며 모두 즐겁게 놀이를 한다.

현재덕이 그의 작품에서 이처럼 갈등을 지양하는 것은 「세발자전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발자전거」에서 귀돌이는 만이에게 세발자전거를 자랑한다. 귀돌이는 현덕 유년동화에서 ‘있는 집 아이’인 기동이에 대응하는 인물이다. 자신의 물건을 자랑하고, 친구들을 놀리는 기동이는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그러나 「세발자전거」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귀돌이는 세발자전거를 타며 만이에게 사랑을 한다. 그리고 자신은 세발자전거를 타고 만이는 달음박질을 해서 누가 빠른지 내기를 하자고 한다. 만이는 세발자전거를 부러운 듯이 쳐다본다. 그런데 “아마 자전거끼리 서루 내기를 하지않으면 재미가 없나봅니다.”라는 마지막 문장은 귀돌이라는 ‘있는 집 아이’에서 ‘놀이’로 갈등의 원인이 이동했음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만이와 귀돌이 사이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소거되고, 세발자전거라는 같은 ‘놀이기구’만 있다면 함께 놀 수 있는 친구로 돌아간다.

현재덕은 확연하게 현덕 유년동화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를 자신의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현덕과는 다른 유년동화의 특징을 구현했다. 바로 ‘선의의 세계’다. 선의의 세계는 유년동화의 대표적 특징이기도 하다. 다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선의의 세계가 유년동화에서 가능한 이유는 유년 아동이 갖고 있는 밝고 긍정적인 기질 때문이다. 「노래를 부르면」에서도 현재덕의 이러한 지향점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노래를 부르면 다 같이 마음이 똑같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두 똑같은 하나의 마음이 있다면 갈등도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 사이의 ‘똑같은 마음’은 현재덕의 다른 작품에서 많이 다루는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바탕이기도 하다.

## 2) ‘유년 아동 우위’ 이미지

이주훈의 작품에서는 ‘유년 아동’이 서술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차지」나 「애기네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성인 또는 손위 형제가 유년 아동을 관찰하는 서술자로 나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주훈이 쓴 「식구주머니」<sup>18)</sup>와 「우리집 식구」<sup>19)</sup>에서는 유년 아동에 대한 이미지가 잘 나타나 있다. 「식구주머니」에서는 식구들을 모두 주머니에 비유한다.

유년 아동 화자는 아빠는 돈주머니, 엄마는 걱정주머니, 할머니는 애기주머니 등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자신은 피 주머니라고 말한다. 「우리집 식구」도 유사한 내용이다. 아빠는 호랭이, 엄마는 비둘기, 누나는 울넌이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형은 꿀돼지, 싸움대장, 심술꾸러기, 개구쟁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자주 다투는 사이임을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은 「식구주머니」의 피쟁이와 유사하게 뽕뽕이라고 한다.

이주훈은 이러한 유년 아동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형을 놀리는 동생으로 자주 등장한다. 「언니의 공부」에서는 형이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책을 세워두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때 유년 아동은 학교 공부를 안 하고 ‘낮잠 공부’를 한다며 형이 엉터리라고 생각한다. 「잠꾸러기」<sup>20)</sup>는 날마다 낮잠 자는 잠꾸러기 형을

18) 이주훈, 「식구주머니」, 『매일신보』 1940.3.14.

19) 이주훈, 「우리집 식구」, 『매일신보』 1940.3.26.

놀려주는 이야기다. 화자인 유년 아동은 형 몰래 시계바늘을 돌려놓는 장난을 친다. 이 사실을 모르는 형은 놀라서 아빠 모자를 쓰고 나간다. 형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왜 웃는지 영문도 모르고 학교로 뛰어가기 바쁘다.

형에게 장난을 치고, 오히려 형을 엉터리라고 놀리는 이런 유년 아동의 모습에서는 유년 아동의 우위를 확인할 수 있다. 상위 연령의 아동과 구분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유년 아동에게는 ‘절대적’ 보호와 이해가 전제된다. 그들은 성인의 전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며 그들의 실수나 장난은 ‘어리기 때문에’ 용인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유년 아동은 성인과는 다른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유년동화에 자주 등장하는 현실과 환상의 미분리와 현실 세계의 모방, 놀이의 원칙이 지배하는 세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유년 아동에 대한 ‘허용’은 현실 세계와는 구분되는 유년의 세계를 구축하는 바탕이 되며, 이는 곧 유년동화의 미적 특질로 이어진다. 이주훈이 그려내는 유년 아동의 이미지는 ‘유년 아동의 우위’를 명확하게 보여 준다.

### 3) 유년 아동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

유년 아동은 성인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은 많이 다르다. 현재덕의 「참새와 만이」<sup>21)</sup>에서 만이는 참새를 가족처럼 생각한다. 지붕 밑에서 참새가 잠을 자기 때문이다. 엄마와 아빠도 만이 자신도 같은 집에서 자니까 가족인 것처럼 참새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유비 관계는 사람과 동물을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족인 참새는 먼곳에서 놀다가도 돌아온다. 그렇게 날이 저물었음을 만이에게 알려 준다. “만이와 참새는 한 집안 식구입니다. 한 집안 식구처럼 서로 알고 지냅니다.”라는 마지막 부분을 통해 다정한 세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주훈의 「까치대답」<sup>22)</sup>에서는 유년 아동 특유의 경험의 단순화가 나타난다. 아이는 까치에게 시집간 누나가 언제 떡을 해 오냐고 묻는다. 까치가 우는 소리를 듣고 ‘깹깹’이 언제를 뜻하는지 궁금해 한다. 새의 울음소리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처럼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유년 아동은 경험의 범주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상황에 대해 여러 경우를 대입시키는 것이 어렵다.

가장 자주 활용하는 방법은 ‘자신의 상황’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자기중심적 사고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바탕에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까치대답」에서 아이는 누나가 오고난 후, 까치의 ‘깹깹’이 ‘오늘’을 뜻했다고 생각한다. 아이의 이런 생각은 물론 비과학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이는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방식을 보여 주며, 유년 아동은 그렇게 나름대로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유년동화의 미덕은 우리가 익숙하게 느꼈던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감장수」도 유년 아동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세상을 이해하는지를 잘 담고 있다. 아이는 땅속에 물감장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랑물감, 빨강물감, 파랑물감 장수가 땅속에 살아서 봄이 되면 여러 색의 꽃이 핀다는 것이다. “땅속에는 아주 여러 가지 물감을 팔러 다니는 물감장수가 꼭 살 거야”라는 아이의 확신은

20) 이주훈, 「잠꾸러기」, 『매일신보』 1940.3.22.

21) 현재덕, 「참새와 만이」, 『매일신보』 1940.3.2.

22) 이주훈, 「까치대답」, 『매일신보』 1940.3.29.

관찰을 바탕으로 하며, 직관적이며 또 단순하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 삶에도 적용된다. 소중한 가치와 삶의 의미 등은 생각보다 복잡하거나 과학적이지 않다. 직관적이고 상황을 단순화함으로써 오히려 핵심에 다가설 수 있다.

또한 유년 아동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자연 또는 동물과의 교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인간중심사고에서 벗어나 더 확장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매일신보』의 유년꼭지 「애기나라」를 분석하였다. 「애기나라」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우리차지」와 「애기네판」보다 늦게 연재된 유년꼭지다. 무엇보다 완성된 형태의 유년동화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현재덕과 이주훈, 윤복진과 같은 뛰어난 작가의 참여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희순과 이승만 등 당시 유명 화가들이 삽화를 담당해 「애기나라」의 작품성을 더욱 높여주었다.

「애기나라」는 유년동화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때 유년동화의 가능성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유년동화로의 가능성, 즉 유년동화가 보여 주는 형식적·내용적 특성을 의미한다. 형식적 조건으로는 큰 활자와 짧은 분량이 대표적이며 유아어, 반복 문장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내용적 특성으로는 자연친화적이며 서정적이라는 점과 유년 우위로 허용되는 ‘유년의 세계’, 유년 아동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고스란히 유년동화의 미적 특질이 된다.

또 다른 유년동화의 가능성은 유년동화가 갖는 의의를 뜻한다. 유년동화라는 장르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유년동화는 형식적·내용적 측면에서 일반 성인 문학과 비교해 색다른 문학적 즐거움을 제공한다. 또한 유년의 세계를 통해 이 세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유년동화에서 보여 주는 인간중심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 동물과 소통하며 이루어지는 온정적 세계는 ‘비인간-인간’의 세상, 포스트휴먼 시대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것이 유년동화가 유년 독자를 대상으로 한 서사물에서 더 나아가 장르의 존재 의의를 보여 줄 수 있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자료

『매일신보』 (1940.2.26-1940.5.23)

### 2. 논문 및 단행본

- 김화선, 「이태준의 초기 아동문학 작품 연구」, 『한국언어문학』제50권, 한국언어문학회, 2003.
- 류덕제, 『한국 아동문학비평사를 위하여』, 보고서, 2021.
- 박인경, 「1930년대 유년문학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2021.
- 박주혜, 「이태준과 현덕의 유년동화에 나타난 아동의 구현 양상 연구」, 『동화와번역』제27집, 동화와번역연구소, 2014.
- 방재석·김하영, 「현덕 유년동화의 놀이 모티프에 나타난 현실 인식 -노마 연작을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제30집, 동화와번역연구소, 2015.
- 안미영, 「이태준의 아동 서사물 연구」, 『개신어문연구』제29집, 개신어문학회, 2009.
- 원종찬, 「현덕 동화 연구: 일제시대의 생활동화 ‘노마’ 연작에 관해」, 『아침햇살』여름호, 아침햇살, 1996.
- 이미정, 「1930년대 유년생활동화에 나타난 시선의 의미화: 이태준, 박태원, 현덕의 작품을 중심으로」, 『비평문학』제63호, 한국비평문학회, 2017.
- \_\_\_\_\_, 「1930년대 유년잡지 —『유년중앙』과『유년』특성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제21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7.
- \_\_\_\_\_, 「동아일보 「애기네 판」에 나타난 유년 이미지」, 『비평문학』제72호, 한국비평문학회, 2019.
- \_\_\_\_\_, 「『조선일보』 「우리차지」에 나타난 유년 이미지 -인물 모티프를 중심으로-」, 『국제어문』제88집, 국제어문학회, 2021.
- 이신미, 「유아어의 특성과 발달에 관한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1989.
- 정진현, 「1930년대 유년(幼年)의 발견과 ‘애기그림책」, 『아동청소년문학연구』제16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5.
- \_\_\_\_\_, 「1930년대 《동아일보》 유년(幼年)동화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제19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6.
- 정선혜, 「매혹적인 상징의 세계로 초대하는 이주훈의 동화 세상 —『햇님과 금붕어』에 나타난 이주훈의 문학 세계」, 『아동문학평론』44권 4호, 아동문학평론사, 2019.

### 3. 기타 자료

김경애, 「길을 찾아서 (21) 문화학원과 자유주의 예술교육」, 한겨레 2017.6.1.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97086.html](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97086.html)

# 〈『매일신보』『애기나라』를 통해 본 유년동화의 가능성〉에 대한 토론문

박주혜(한양대학교 강사)

이 논문은 『매일신보』의 「애기나라」에 실린 유년동화를 표현적, 내용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미학적 특질을 갖춘 작품으로써 유년동화의 가능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의 비인간적 관점을 보여 주는 하나의 장르로서 유년동화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애기나라」에 실린 유년동화가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한 성취를 이루어내고 있으며, 포스트 휴먼 시대의 새로운 장르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이 논문의 주요 논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논문에서 거론하고 있는 유년동화적 특징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애기나라」에 실린 작품의 특징으로만 보기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논문이 주장하는 바가 기존의 분석들과 어떠한 변별점을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이 논문은 「애기나라」가 『조선일보』의 「우리차지」와 『동아일보』의 「애기네판」과 차별화되는 지점으로 서사적 요소의 강화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 분석에서 서사성이 발휘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덕 작품의 서정성 및 비갈등 추구는 서사성을 배반하고 있으며, 논문에서 분석하는 ‘선의의 세계’는 서사적 요소를 강화하기보다는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드러납니다. 「애기나라」의 차별성으로 뽑으신 서사적 요소가 개별 작품들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년기 아동의 특수성을 어린이 아닌 아동의 관점에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년기 아동을 보호해야 하고 장난을 용인할 수 있다는 ‘허용’의 개념은 어른 관점에서 판단하는 아동의 모습입니다. 보다 본질적인 것은 아동 내부의 욕망이 드러나는 방식일 텐데, 타자의 시선에 의존하지 않은 본질적인 아동 존재를 입증하는 증명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년기 아동의 시선을 직관성과 단순함으로만 파악하기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유년기 아동 특유의 메커니즘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긍정하며, 어른의 시선에서 내리는 성급한 판단을 유예한다면 「애기나라」 유년동화만의 진정한 가치를 고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에서 제시하는 유년동화에 나타나는 물활론적 사고를 포스트 휴먼 시대의 ‘비인간’ 장르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가 흥미롭습니다. 다만 유년동화에서 사물에 마음을 이입하여 바라볼 수 있는 공감의 능력과 끊임없이 정체성 자체를 해체하며 비인간에 대비되는 인간중심주의를 허물고자 하는 근래의 포스트 휴머니즘 개념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보다 상세한 방향성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물이나 동물에 마음을 이입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동물에게 사람의 마음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인간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강화하는 양상으로 해석되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러한 이분법을 깨고자 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의 개념과는 배반되는 것인데, 이러한 지점을 어떻게 ‘비인간’ 장르와 연결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지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이 논문의 중요한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림책의 시각적 경험과 예술화 연구

정영숙(전남대학교 박사수료)

## 《 목 차 》

- I. 머리말
- II. 그림책의 시각적 경험
- III. 서사를 넘어 예술화
- IV. 맺음말

## I. 머리말

문학과 예술의 양상이 산업의 발달로 디지털화 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정보화 시대 변화 앞에 섰다. 어린이의 호기심을 끄는 그림책도 시대에 맞춰 달라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기에 백희나, 이수지 작가의 그림책을 통해 유아·아동을 위한 시각적 경험과 예술화 연구를 하고자한다. 두 작가의 그림책은 시각적인 경험을 언어와 연결하여 표현하는 그림책, 정서적이고 철학적인 콘텐츠로의 서사적 이해를 넘어 예술적인 활동으로 인정되는 그림책을 창작하고 있다. 본고는 두 작가의 그림책을 중심으로 변화된 문학사회상을 다루어 미래를 사는 아이들의 감성을 충족하고 상상력을 돕는 그림책의 현재를 알아보고자 한다.

포스트휴먼시대에 그림책은 아동도서로 어린이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읽기에 적합한 문학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독자에게 문학사회적인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그림책 창작은 비창작 주제와 창작 주제의 그림책으로 구분하여 발전하고 있다. 비창작 주제는 기존의 이야기(전래동화, 고전소설 등)를 다뤄 전통을 전승하는 방법이고, 창작 주제의 그림책은 새로운 글이나 창작이야기를 독창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중 1인 창작의 그림책 작가는 북 디자인에 있어 글과 그림의 표현조절에 상호 보완적 연출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창작하고 있다.<sup>1)</sup> 그림책 속 일러스트레이션의 공간표현 특징은 텍스트, 그림, 여백 등을 나타내기 위한 다양한 편집기술과 합리적 공간배치를 시도하고 있다. 공간프레임은 그림책 창작을 효율성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자 중심적인 흥미로운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sup>2)</sup>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작가의 철학, 사상 등을 이미지화 하고 있어 심층적 구조에 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sup>3)</sup>이처럼 한국 그림책은 장르가 세분화되어 양적 성장은 물론 예술적인 부분까지 질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

1) 송열열, 「1인 창작 그림책의 북 디자인 적용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2) 한영강, 김기수, 「그림책 속 일러스트레이션의 공간 표현 특징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 Vol.21 No.3. 2020.

3) 민경록, 「그림책의 시각적 문식성에 관한 연구-사서의 독서지원서비스를 위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1권 제2호, 2017, 23쪽.

키퍼(Kiefer, 1995)<sup>4)</sup>는 그림책이 글과 그림의 결합이 부분의 합보다 많은 것을 독자에게 전한다고 보았다. 페리 노들먼(Nodelman, 1998)<sup>5)</sup>은 글과 그림의 결합을 잘 이해하기 위해 그림을 읽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림을 시각 언어로 보고, 그림의 문법, 그림 읽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니콜라예바(Nikolajeva & Scott, 2001)<sup>6)</sup>는 그림책이 시각과 언어라는 두 가지 수준의 의사소통을 결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상호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독자와 소통하는 문학·예술·심미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창작 그림책에 출발 관점을 보면 90년대 초반 이전까지는 외국 번역 그림책에 의해 출판되었다. 우리의 순수 한국 창작 그림책은 1988년 류재수 작가의 『백두산이야기』 한 권이 출판되었다. 이처럼 1990년대까지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고 1993년 8종이 출판되었다. 2000년대 이후부터 활발하게 출판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278종, 2010년에는 393종에 달하는 급성장을 하였다.<sup>7)</sup> 특히 문학 장르에서 2019년에는 만화를 제외하고 아동도서가 12,3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아동도서인 한국 그림책의 양적성장을 추론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sup>8)</sup>

현재 우리 창작그림책은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성장을 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림책이 캐릭터만 살아있다면 종이책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로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sup>9)</sup> 또한 다양한 방법의 일러스트레이션의 분석을 통해 유아아동독자들의 이해력을 높이고 있다.<sup>10)</sup> 이러한 의미에서 포스트휴먼시대에 유아아동문학인 그림책 연구를 통해 글과 그림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포스트휴먼시대의 그림책이 전 세계 유아아동의 조기 학습 자료가 되며, 다양하고 독특한 스타일과 표현기법으로 정보와 스토리를 전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 유아아동문학의 새바람을 이끌고 있는 백희나, 이수지 작가의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림책이 시각적인 이미지 경험을 넘어 예술화까지 발전하고 있는 역동적인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 II. 그림책의 시각적 경험

포스트휴먼시대 디지털화 된 그림책은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파급효과가 있다. 현재는 그

4) Kiefer, The Potential of Picturebooks: From Visual Literacy to Aesthetic Understanding, Englewood Cliffs, NJ: Merrill, 1995.

5) Nodelman, Words about pictures: the narrative art of children's picture books,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98.

6) Nikolajeva, M& Scatt, C, How Picturebooks Work, NY: Garland Pub, 2001.

7) 정병규, 『우리 그림책 작가를 만나다: 작업실에서 만난 작가 37명의 그림책이야기』, 보리, 2018. 어린이책예술센터의 정병규, 황인선

8) 군포시청, 「군포시 그림책 박물관공인 『한국 창작그림책 아카이브 구축』연구」, 군포시 문화체육과, 2020. 3쪽.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아동청소년학과 현은자 교수 연구단)의 2020년 군포시 그림책 박물관공인 『한국 창작그림책 아카이브 구축』연구의 최종보고서를 참고 하였음.

9) 우현옥, 이진웅, 「그림책의 콘텐츠 활용 연구-『구름빵』 서사 발견 양상 연구」, 인문콘텐츠 제35호, 2014.

10) 한혜진, 「그림책에 나타난 계슈탈트 시지각 법칙-이수지 그림책을 중심으로」, The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vol.25 No.3, 2022, 32~42쪽

이수지 작가의 그림책 전반에 대해 계슈탈트 시지각 법칙 6가지 유사성, 연속성, 폐쇄성, 근접성, 배경과 전경, 비례와 순서에 의해 분석하고 있다.

그림책이 시대 환경에 맞게 시각적인 경험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혁신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전통적인 그림책의 목적과 의미가 시대적인 조류에 힘입어 폭넓게 확장되어 가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출판 분야에서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며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함께 읽히는 문학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글과 그림으로 구성된 그림책은 언어 텍스트와 시각 텍스트가 상호 보완작용에 의해 의미가 전달되는 독특한 장르이다.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다른 이원구조일 때, 글 작가는 문체를 중심으로 글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창작하고 그림 작가는 사물의 대상과 형상들에 감정을 이입시킨 그림으로 글 작가의 의도를 전달한다. 글과 그림의 일원구조의 작가들은 스스로 원하는 스토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통한 통합적인 활동으로 그림책의 이해를 확장시키고 있다.

그림책은 언어기호로 된 글과 시각적 이미지인 그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복합양식 텍스트이다. 이러한 그림책은 그림의 기호체계인 시각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시각언어의 이해가 전제된다. 더 나아가 문학과 미술에 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두 개의 기호가 함께 나타내는 의미를 읽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진 그림책을 읽기 위해서는 언어 요소와 시각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인 의미를 읽을 수 있는 시각 문해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sup>11)</sup>

그림을 글처럼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림의 예술적 요소(선, 공간, 모양, 색, 질감, 구도와 조망), 예술적 표현 양식, 예술적 매개체(수채화, 아크릴, 파스텔, 유화, 연필, 크레파스, 판화, 콜라주, 사진 등)에 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sup>12)</sup> 하지만 유아아동의 교육적 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

그림책에 첫 번째 독자인 유아아동은 대부분 문자인 서지적·언어적 기호를 알기위해 교육을 통해 배운다. 그러나 시각적 그림이 전하는 정보를 배우는 것은 아니다. 유아아동의 그림책은 글을 읽지 못한 어린독자가 시각적인 경험만으로 그림이 전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는 그림책이라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자신의 눈높이에 맞게 스스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성장하는 유아아동의 이러한 능력은 글이 전하는 문해력과 그림이 전하는 다양한 의미전달을 통합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자가 전해주는 문학적 문해력과 그림책이 전하는 예술적 이해력은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림책은 기능적으로 구분하면 지식, 습관형성, 스토리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지식분야는 주로 텍스트, 숫자, 색깔, 사물 등 인기 있는 과학 그림책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미취학 아동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습관형성 분야는 현지의 전통 문화와 사회적 풍습에 근거하여 독자의 위생습관, 사회적 에티켓, 생활 준칙 등을 내용으로 한다. 스토리 분야는 전통신화와 역사 스토리, 삶을 묘사하는 생활스토리 및 판타지 스토리로 내용이 매우 풍부함을 알 수 있다.<sup>13)</sup> 이러한 그림책의 이야기들은 매우 강한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고 디자인이 예술적이며 다양한 스타일을 지니고 있으며 작가의 창작 열정도 높은 편이다.

일반 아동문학에서는 글이 주제이고 그림은 글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단편동화

11) 페리 노들만, 김상욱 옮김, 『그림책론: 어린이 그림책의 서사방법』, 보림, 2011. 27쪽.

12) 민경록, 「그림책의 시각적 문식성에 관한 연구-사서의 독서지원서비스를 위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1권 제2호, 2017, 24쪽.

13) 한영강, 김기수, 「그림책 속 일러스트레이션의 공간 표현 특징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 Vol.21 No.3. 2020. 132쪽.

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돕는 정도의 3~4개의 그림을 배치한다. 반면 번안동화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동등한 정도였고 글이 주체적인 스토리를 이끌고 있다.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림에 비중이 높아지고 글이 보조역할을 하는 추세이다. 현재 포스트휴먼 시대의 그림책은 그림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예술화로 이르러 시각 문학으로 인식된다.

2023년 현재 한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림책 작가인 백희나, 이수지 그림책은 그림의 비중이 스토리를 대신할 만큼 높다. 두 작가의 그림책 창작스토리는 가족, 사회, 자연, 음악, 문화 등이며 그림은 다양한 장르와 결합된 예술화로 시대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중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은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예술적 도입을 하여 창작하고 있다.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매체를 사용한 작가의 그림책은 글이 짧고 간결하며, 시대상을 드러내 울림이 있는 스토리를 전해준다. 그림은 찢어 붙이는 콜라주기법뿐 아니라 점토로 등장인물들의 표정을 완성하는 특징이 있다. 또 다른 특징은 계획된 구성 아래 연극무대처럼 입체적인 세트를 만든 뒤, 영상매체에서 사용하는 3차원의 입체 형식으로 사진으로 촬영한다. 이러한 그림책은 독자가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극적 구성을 느낄 수 있다. 그림책의 내용으로는 우리나라의 근·현대를 이어주는 생활사뿐 아니라 전통 설화를 이용하여 현실의 세대를 지적하고 있다. 그녀의 작품은 2020년 아스트리드 린드그랜상을 수상하게 될 만큼 시선을 끌었다. 그 중 『구름빵』은 50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 영어, 일본어 등 8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 『구름빵』 캐릭터는 다양한 이야기로 확장되면서 24권의 전집 그림책으로 출간되어 캐릭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했다.

포스트휴먼시대에 시대적 환경을 배경으로 삼은 그림책 작품 중 『알사탕』<sup>14)</sup>은 현대 아이들의 생활양식과 가족과의 관계를 다룬 작품이다. 이 작품은 단일플롯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글 내용에서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은 점토로 캐릭터를 살린 등장인물과 현실감있는 집모형의 세트를 극 구성 형태로 배치하였다. 사진촬영의 기법중 하나의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배경을 흐리게 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캐릭터의 행동과 표정에 집중하고 있다.



[그림책 1] , 백희나 작가의 『알사탕』

시작하는 문장으로는 ‘나는 혼자 논다’라며 친구가 없어 외롭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 마지막 문장 “나랑 같이 놀래?”라는 문장을 통해 주인공의 변화와 주체적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아이가 먹는 알사탕이라는 매개체는 현실의 세계와 환상의 세계로 넘어가는 통로이다. 알사탕을 하나 먹을 때마다 소파, 개(구슬이), 잔소리쟁이 아빠의 속마음과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 나뭇잎의 소리를 듣는다. 아이는 마지막 투명 사탕을 먹었지만 아무소리가 들리지 않자, 친구에게 먼저 “나랑 같이 놀래?” 라고 말한다. 놀이터에 친구가 등장하고 아파트 입구에 함께 놀던 운동기구가 나란히 있는 그림을 통해 ‘둘이 함께 놀고 있겠구나.’라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열린 결말의 그림책이다.

이 그림책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환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소파의 목소리를 통해 끼인 리

14) 백희나, 『알사탕』, 책읽는곰, 2017.

모건을 찾았고, 아빠가 방귀 좀 끼지 말아달라는 부탁도 듣는다. 집에서 키우던 개 구슬이의 목소리를 통해서는 늙어서 따라다니기 힘들다는 것과 목줄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해결해 준다. 또 사탕 하나를 먹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 잔소리 많은 아빠의 등에서 사랑한다는 진심이 들린다. 사탕 속 분홍 풍선껌을 씹자 돌아가신 할머니가 여학교 때 친구를 만나 잘 지내고 있음도 듣게 된다. 아파트 놀이터의 나뭇잎도 안녕을 외치고 있다. 이 그림책의 핵심 주제인 주인공의 친구 사귀는 문제는 주인공 스스로 해결하여 긍정적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책에서 그림은 스토리를 보조적으로 설명해주는 삽화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텍스트로의 역할을 한다. 그림은 등장인물의 성격과 움직임을 드러내고 글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책속의 등장인물들이 살아 숨 쉬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독자도 하여금 생생하게 체험하게 한다.<sup>15)</sup> 그림은 어린아이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창조하고자 하는 욕구와 자연을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 사물을 조작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그림책에서 시각적 이미지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정보를 소통하는 것으로 이미지에 맞는 접근방식을 취할 때 그 의미가 잘 드러나게 된다.

의인화 그림책 『나는 개다』<sup>16)</sup>는 개의 시야로 보는 한 가족의 이야기이다. 개는 아빠와 아들 동동이,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그들의 일과를 소개하고 있지만 정작 개 자신의 관점에서 보는 세상인 것이다. 자신이 사는 주위 환경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사람인 동동기와 따듯한 소통을 그린 작품이다.



[그림책 2] . 『나는 개다』

작가는 먼저 그림 도안을 잡고 등장인물을 캐릭터를 결정하고 점토로 표정을 살려 만든 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입체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작가는 미술 활동을 통해 강약 조절하며 그림책의 스토리를 이끌어 간다. 이러한 작업은 스토리 중 어떤 부분 누구를 강조할 것 인지, 무엇을 배경으로 두어야 할 것인지 연출가의 시야로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책에서 강조된 캐릭터의 배치는 그림책을 읽는 독자의 위치에서 원근감을 느낄 수 있는 구성을 하였다. 회화에서 원근법은 화면을 현실의 축소판처럼 보이게 하는 작용으로 사람의 시각적 경험 습관에 부합한 화면 효과를 준다. 르네상스부터 바로크예술, 신고전주의 그리고 낭만주의 회화에 이르기까지 원근법은 서양회화 속 공간표현의 권위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백희나 작가의 사진으로 촬영된 그림책은 대상 픽셀의 강약 조절에 의한 원

15) 이차숙, 「Arnheim의 시각적 사고 이론에 기초한 그림책의 그림읽기 지도 전략 탐색」, 한국영유아보육학 제 79집. 2013, 2쪽.

16) 백희나, 『나는 개다』, 책읽는곰, 2019.

근감으로 아이들에게 호기심과 재미를 주고 있다. 이는 영상작품에 비견될 정도로 섬세한 예술적인 활동이며, 유아아동의 시각적 경험을 증대시키는 활동인 것이다. 이러한 종합 예술적 활동으로 하나의 그림책이 탄생됨을 알 수 있다.

백희나 작가의 2022년 작품 『연이와 버들도령』<sup>17)</sup>은 한국구비문학인 구전설화<sup>18)</sup>를 참고하여 창작한 그림책이다. 나이든 여인과 소녀 연이의 이야기로 그림책에서 잘 다루지 않은 ‘죽음’을 다루고 있다. 스토리는 추운 겨울날, 나이든 여인이 소녀에게 상추를 먹고 싶다고 한다. 상추를 구하러 산속에 간 소녀는 동굴 속 도령의 도움으로 받는다. 나이든 여인은 상추를 구해온 소녀가 추운 겨울날씨에 어떻게 구했는지 궁금해 뒤 쫓아온다. 나이든 여인은 연이가 도령의 도움으로 가져온 것을 알고 동굴 속 도령을 죽이고 그곳을 불태운다.

옛이야기에서 스토리를 추출하여 현실감 있는 배경을 사용하고 등장인물은 입체감이 있는 종이인형, 점토인형을 이용해 리얼한 행동과 표정을 살렸다. 그림책의 배경으로 사용된 눈 오는 계절은 야외 현장을, 집과 동굴은 실내 세트 장치를 이용하고 있다. 백희나의 이러한 제작방식은 시간, 공간적 흐름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 유도한 구성 방식이다.



[그림책 3] . 백희나 작가의 『연이와 버들도령』

작가의 그림책은 3차원 배경을 창조한 후 장면마다 사진을 찍는 활동을 통해 마치 영상을 보듯이 생동감 넘치는 질감으로 표현되어 있다. 다양한 장소와 세트를 사용한 백희나 그림책은 성장기의 어린이로 하여금 지나간 세대의 생활문화와 현재의 시대환경을 복합적으로 인식하게 돕는다. 등장인물들은 입체적, 애니메이션 기법을 적용하여 현대 독자의 선호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다중 구조는 현실과 환상을 동시에 체험하게 하는 기법으로 상상력을 배가 시킨다. 이러한 활동은 그림책을 읽는 독자인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흥미와 재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포스트휴먼시대의 그림책은 전통적인 회화매체 외에도 극 형식에 이용하는 세트와 사진

17) 백희나, 『연이와 버들도령』, 책읽는곰, 2022.

18) 정상박, 「계모의 학대」, 『한국구비문학대계 8-13 : 경남 울산시 울주군 편 2』, 한국학중앙연구원, 1886.

조동일, 「정애 정도령」, 『한국구비문학대계 7-3 : 경상북도 경주시 월성 편 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임석재, 『반반버들잎 초공시와 엮엮이』, 『임석재 전집7 한국구전설화 전라북도 편1』, 평민사, 1991.

서정오, 『버들잎 도령』, 『옛이야기 보따리』, 보리,

이원수, 손동인, 『연이와 버들잎 소년』, 창비, 2016.

박연숙, 『한국과 일본의 계모설화 비교연구』, 민속원, 2010.

등 혼합매체를 사용하여 발달하고 있다. 또한 영상 예술과 결합하여 재생산되어지고 일상생활의 소통 매체로 공유될 만큼 발전했다. 이러한 그림책의 시각적인 경험은 지각과 사고의 복합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적 단계에서 역동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창조성을 확보한다. 그림책은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한 시지각적 경험을 높이고 있을 뿐 아니라, 어린 독자들의 미적 지각과 다양한 예술적 확장을 돕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서사를 넘어 예술화

그림책은 대부분 아이들이 말을 하기 이전에 말을 시작하기 위한 도구로, 이해력과 표현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적 유희적 역할로 사용했다.<sup>19)</sup> 좋은 그림책은 섬세하고 풍부한 그림이 있어 유아들의 호기심을 충족할 만큼 다채로움을 전달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림책의 글과 그림은 언어적 상상력과 시지각적 경험까지 눈뜨게 돕는다. 이는 정신적 성숙뿐 아니라 미적 즐거움과 정서적 성장을 불러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문학적 자질뿐 아니라 예술적 심미성까지 발달시킴을 알 수 있다.

포스트휴먼시대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 회화가 매우 중요한 회화 창작의 수단이 되고 있다. 컴퓨터는 전통회화의 다양한 회화 방식을 모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정과 네트워크 전송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sup>20)</sup> 이러한 시기에 그림책은 문학과 회화가 만나 예술성을 추구하고 아이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만나는 종합문화매체로 자리한다. 문학과 예술의 세계로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그림책의 디자인은 텍스트와 회화를 접목한 예술화로 문학성을 확보하는 요건이 되고 있다.

이수지 작가는 창의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글 없는 그림책 작가이다. 작가의 글 없는 그림책은 글이 있더라도 보조 역할을 하는 정도도 낮아 오로지 그림으로 의미전달을 하고 있다. 그녀의 그림책은 2차원 평면 공간에 수채화, 크레파스화, 유화, 콜라주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인 이해를 높인 예술적인 그림을 창작하여 사랑을 받고 있다. 화면공간은 추상적인 면과 구상적인 면을 이용하며 예술적인 경지로 발전하고 있다.

이수지의 『여름이 온다』<sup>21)</sup>는 아동문학 노벨상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2022)<sup>22)</sup>을 수상했다. 이 그림책은 콘서트장의 무대 위에서 흑백의상을 입은 연주자들이 음악 ‘비발디의 사계 여름’을 연주하고 있으며, 동시에 ‘가족의 여름 놀이’를 합쳐 스토리를 구성한 이중 구조형 그림책이다.



19) 우현옥, 이건웅, 「그림책의 콘텐츠 활용 연구-『구름빵』 서사 발견 양상 연구」, 인문콘텐츠 제35호, 2014. 32쪽.

20) 한영강, 김기수, 「그림책 속 일러스트레이션의 공간 표현 특징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 Vol.21 No.3. 2020. 133쪽.

21) 이수지, 『여름이 온다』, 비룡소, 2021.

22) 안데르센상은 19세기 덴마크출신 동화작가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을 기리고자 1956년 만들어진 상으로 아동문학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상이다.



[그림책 4] 이수지 그림책 『여름이 온다』

이수지 그림책은 시각적으로 정보를 확보하는 다양한 회화적 기법을 이용하여 스토리 정보를 획득하게 돕는다. 이 그림책에서 글은 전체 시작을 알리는 정도로 짧고 음악연주 형식인 1악장 2악장 3악장으로 형식을 나누고 있다. 그림은 회화공간에서 나오는 점, 선, 면의 공간과 색채(색종이와 수채화, 크레파스, 아크릴 물감, 연필)를 이용했다. 그림의 회화적 기법은 수채화를 이용하고 있으며 콜라주형태로 색종이를 붙여 색채를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색채는 그림에서 율동감과 속도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움직임 역시 음악이 들리는 것처럼 역동적이며, 스토리의 변화를 회화적 색채를 통해 전달하는 독특한 스타일이다. 이러한 공간표현의 상징성은 이야기를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기호이며, 그림의 색상, 명암, 크기, 이야기의 대상의 변화는 그림책이 예술화로서 인식될 수 있는 공간표현 양식이 된다.

이수지의 『그림자놀이』<sup>23)</sup>는 그림에서 글은 최소로 사용하고 있다. 문자는 ‘딸깍’이라는 불을 켜고 끄는 소리와 “저녁먹자!”라고 부르는 소리 정도이다. 이 그림책은 아이들의 시각적 경험을 흑백으로 구성하고 빛에 의해 생긴 그림자를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요소로 극대화시키고 있다. 그림책의 구성은 위, 아래 형식으로 책장 넘김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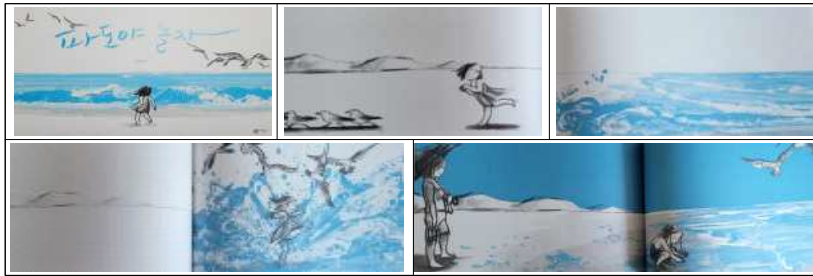
[그림책 5] . 이수지 그림책 『그림자 놀이』

아이들의 상상력은 일상 속의 모든 것들에 매직을 일으킨다. 이 그림책에서는 상상 속의 세계로 가기위해 그림자에 매직의 색을 넣었다. 그 색은 노란색으로 흑과 백 사이의 마술적 환상을 폭 넓게 보여주는 색이다. 이 노란색은 아래에서 시작되어 전체로 번져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는 상상의 세계로 넘어 가는 새로운 변화의 색이자 환상의 색이다. 아이는 이 환상의 공간에서 자신의 상상의 세계를 확보하며 넓혀 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딸깍’

23) 이수지, 『그림자놀이』, 비룡소, 2010.

이라는 불 켜는 소리와 "밥 먹자"라는 부름의 목소리로 아이들이 환상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장치를 이용하여 창작하였다.

그림책 『파도야 놀자』<sup>24)</sup> 역시 글이 없고 오로지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하얀 배경에 먹과 파란색을 이용하여 소녀 그리고 갈매기가 생생한 파도와 어떻게 친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책이다.



[그림책 6] . 이수지 그림책 『파도야 놀자』

이수지의 『파도야 놀자』는 ①아이가 바닷가에 놀러 나왔지만 거친 파도를 두려워하며 쉽게 친해지지 못한다. ②갈매기는 해변에서 아이를 응원하듯 같이 움직인다. ③거친 파도가 아이에게 달려들자 아이는 파도를 피한다. ④시간이 지나자 용기 있게 아이가 파도 속으로 들어가고 갈매기도 힘차게 날개 짓하며 함께 놀게 된다. ⑤엄마가 데리러 오자 바다는 잔잔하게 파도를 친다.

이 그림책은 다채로운 색상보다는 2가지 색을 이용하고 있다. 왼편은 검은 먹으로 그려 주인공 소녀의 두려움을 나타내고, 오른편은 포말이 일어나는 파란 파도를 나타내 거대한 자연을 나타냈다. 파도가 아이와 놀기 시작하자 파도의 색이 아이와 섞인다. 이때부터 아이 치마와 하늘이 점점 파란색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아이와 파도의 놀이에만 집중되는 스토리로 아이들의 흥미와 재미를 이끌었다. 그림책 마지막 부분에 엄마가 우산과 신발을 들고 아이를 데리러와 바닷가 모래밭을 걸을 때는 환상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나오는 것처럼 경계가 사라지고 하늘에 푸른빛이 살아난다.

이수지 작가는 글 없는 그림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내고 단순한 색을 선택해 그 의미를 극대화하고 있다. 흑백으로 그려진 그림책에 색을 추가할 때 색이 전달하는 작가의 의도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글을 읽지 못하는 유아들은 글보다는 그림의 다양한 미학적 색이나 질감을 통해 의미전달을 받는다. 따라서 그림책은 이러한 종합적인 시각적, 회화적 정보를 통해 감동과 재미를 얻게 하는 기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유아아동들은 그림책에 담긴 회로애락을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기른다. 그림책 속에는 유아들이 즐거워하고 공감할 만한 흥미로운 세계가 들어 있어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한다. 이렇게 확장된 그림책은 유아아동의 정서적 성장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림책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감동은 그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sup>25)</sup>

이처럼 그림책 속의 그림은 단순한 삽화가 아니라 심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텍스트이다. 시각적인 그림의 공간은 스토리 속의 구체적인 장면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 풍부한 내

24) 이수지, 『파도야 놀자』, 비룡소, 2009.

25) 김현희, 박상희, 『유아문학 이론과 적용』, 학지사, 2016.

용이 담긴 그림의 연결로 스토리를 담는 방식이다. 유아아동들의 시각적 경험은 시야에 펼쳐진 그림의 내용을 통해 두려움, 청각으로 느끼는 속도감과 즐거움까지 전달 받는다.

그림책 작가의 예술적인 그림은 그림책 분위기를 표현하고 추상적인 그림 속에 자신의 사상을 담아 자신만의 독창성을 확보한다. 그림책에서 공간의 표현을 결정하는 것은 작가이고, 작가의 주관적인 정서는 독자에 의해 객관성을 성취한다. 우리는 그림책의 글과 그림이 전달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노력을 해야 진정한 문학적 이해와 경험일 것이다. 이처럼 그림책은 시각적인 경험을 넘어 예술화로 이어지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 IV. 맺음말

포스트휴먼시대의 백희나 작가와 이수지 작가의 그림책의 예술적 특징을 종합하면 색, 선, 공간, 질감 등의 미적 요소들을 이용하여 문학과 예술성을 드러냈다. 다양한 예술적 양식을 사용하는 그림책은 색채와 선의 표현, 공간구성, 그리고 여러 미술적 기법으로 유아아동의 미적 감각과 시지각적 경험을 넓혀 주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정서적이고 철학적인 콘텐츠로의 서사적 이해를 넘어 예술화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그림책이 디지털 정보화 시대적 상황을 조응하는 문학사회학적 변화의 시점에 섰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책은 자신이 사는 곳의 정보환경과 네트워크의 연결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그림책의 변화는 향유층의 문화사회적 환경, 즉 지역이나 환경적인 관습, 문화 역사적 인식을 통합한 예술적인 변화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책의 향유층이 유아아동이지만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동시에 경험한 성인 독자도 공유해 읽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은 서로 의존하여 의미를 강화 시켜 독자에게 풍부한 기능을 요구한다. 이는 서사적인 전달도 특별하지만 그림으로 전하는 시각적 경험의 의미양상이 예술화로 발전하는 특별한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아이는 같은 그림책이라도 수 없는 반복 읽기를 하는 습관이 있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성장한다. 그림책이 전해주는 즐거움의 중요한 원천은 시각적 정보의 의미양상을 발견하는 기쁨에 있을 것이다.

시각적인 정보란 시각적 상징이나 배경에 의해 설정된 인물과 상황에 대한 통찰 등을 말한다. 그림책은 직접적인 스토리 재현을 넘어서서 작동하는 그림 속 시각적 정보 요소들을 통합하여 순수한 감각적 즐거움을 준다. 글과 그림의 통합적 이해는 그림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며, 그림책의 복잡한 소통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포스트휴먼시대의 아이들이 읽는 두 작가의 그림책을 살펴보았다. 포스터휴먼은 인간존재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들이 이제는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sup>26)</sup> 인공지능기술의 개발로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유아아동들의 인문학적 활동이 변화를 맞이한 시점이기도 하다. 문학과 예술을 향유하는 방법이 변해온 것처럼 미래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의 그림책 향유방법도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그림책이 가져온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인 인식은 소통하고 공유방식에서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어린이는 포스트휴먼시대의 복잡한 시·지각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이미 디지털화된 환경 속에서 방대한 체험을 하며 이전시대보다 수준 높은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맛보고 살고 있다. 그림책을 읽는 영유아들의 사고는 시각적인 경험 활동, 언어적인 지각 활동에 이어 예술화로 폭을 확장하고 있다. 포스트휴먼시대의 유아아동의 그림책은 전환

26) 로버트 페페럴, 이선주 옮김, 『포스트휴먼시대의 조건-뇌를 넘어선 의식』, 아카넷, 2017, 15쪽.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아 그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그 과제일 것이다.

## 참고 문헌

### 1. 자료

- 백희나, 『나는 개다』, 책읽는곰, 2019.  
백희나, 『알사탕』, 책읽는곰, 2017.  
백희나, 『연이와 버들도령』, 책읽는곰, 2022.  
백희나, 『장수탕 선녀님』, 책읽는곰, 2012.  
이수지, 『그림자놀이』, 비룡소, 2010.  
이수지, 『여름이 온다』, 비룡소, 2021.  
이수지, 『파도야 놀자』, 비룡소, 2009.

### 2. 논문 및 단행본

- 김현희, 박상희, 『유아문학 이론과 적용』, 학지사, 2016.  
김상옥, 『어린이 문학의 재발견』, 창비, 2011.  
마리아 니콜라예바 외 지음, 서정숙 외 옮김, 『그림책을 보는 눈-그림책의 분석과 비평』, 마루별, 2015.  
마리아 니콜라예바 외 지음, 조희숙외 옮김, 『아동무학의 미학적 접근』, (주)교문사, 2014.  
로버트 페페럴, 이선주 옮김, 『포스트휴먼의 조건-뇌를 넘어선 의식』, 아카넷, 2017  
로지 브라이도티, 이경란 옮김, 『포스트휴먼』, 아카넷, 2015.  
로지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환상성』 -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르네 웰렉· 오스틴웨렌, 김경수 역, 『문학의 이론』, 문예출판사, 2014.  
페리 노들만, 김상옥 옮김, 『그림책론: 어린이 그림책의 서사방법』, 보림, 2011  
권종애, 「국내 유아 그림책 출판 현황 연구」,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21, 9(5), 619-633, 2018.  
민경록, 「그림책의 시각적 문식성에 관한 연구-사서의 독서지원서비스를 위한」, 한국문헌정보학학회지 제51권 제2호, 2017, 23쪽.  
우현옥, 이건웅, 「그림책의 콘텐츠 활용 연구-『구름빵』 서사 발견 양상 연구」, 인문콘텐츠 제 35호, 2014.  
이재은, 「스테디셀러 그림책의 문학적·예술적 특성에 대한 분석」, 어린이미디어연구 제21권 제4호, 2022, 317쪽.  
송열열, 「1인 창작 그림책의 북 디자인 적용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한영강, 김기수, 「그림책 속 일러스트레이션의 공간 표현 특징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 Vol.21 No.3. 2020.  
한혜진, 「그림책에 나타난 계슈탈트 시지각 법칙-이수지 그림책을 중심으로」, The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vol.25 No.3, 2022, 32~42쪽  
Kiefer, The Potential of Picturebooks: From Visual Literacy to Aesthetic Understanding, Englewood Cliffs, NJ.:Merrill,1995.  
Nodelman, Words about pictures: the narrstive art of children's picture books,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1998.

Nikolajeva, M& Scatt, C, How Picturebooks Work, NY: Garland Pub,2001.

정병규, 『우리 그림책 작가를 만나다: 작업실에서 만난 작가 37명의 그림책이야기』, 보리, 2018.

군포시청, 「군포시 그림책 박물관공원 『한국 창작그림책 아카이브 구축』연구」, 군포시 문화체육과, 2020. 3쪽.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아동청소년학과 현은자 교수 연구단)의 2020년 군포시 그림책 박물관공원 『한국 창작그림책 아카이브 구축』연구의 최종보고서를 참고 하였음.

이차숙, 「Arnheim의 시각적 사고 이론에 기초한 그림책의 그림읽기 지도 전략 탐색」, 한국영유아보육학 제 79집. 2013, 2쪽.

## 〈그림책의 시각적 경험과 예술화〉에 대한 토론문

배다인(조선대 국어국문학과 초빙객원교수)

현대사회에 그림책의 독자층은 확장세에 있다. 일부 출판사에서는 “0세부터 100세까지” 읽는 책이라며 광고를 하기도 한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아 그림책 시장만은 예상 밖의 성장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처럼 그림책의 독자층이 증가하는 시점에 ‘그림책의 시각적 경험과 예술화’ 연구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포스트 휴먼시대에 유아아동문학인 그림책 연구를 통해 글과 그림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나아가 “그림책이 시각적인 이미지 경험을 넘어 예술화까지 발전하고 있는 역동적인 관계를 밝혀보겠다고” 함에 초점을 두고 질의를 하고자 한다.

글과 그림의 관계를 알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은 독립적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라는 관점은 그동안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백희나 작가와 김수지 작가의 글과 그림의 관계에서 특이점이나 다른 작가와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요?

백희나와 이수지는 그림책 창작 기법적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본 연구 목적인 시각적인 이미지 경험을 넘어 예술화까지 발전하고 있는 역동적 관계를 언급하셨는데 ‘역동적인 관계’의 주체에 관해 보충설명을 요청합니다.

3. ‘그림책은 작은 종합예술이라고 불리는데’<sup>27)</sup> 그림책이 포스트휴먼시대의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예술화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1~2가지 부탁드립니다.

---

27) 와키 아키코 지음·홍성민 옮김(2006), 『그림책에서 이야기책까지』, 현문미디어, p74.

# 문학교육 관점에서 바라본 영아 그림책의 미학적성

김태호(춘천교육대학교 교수), 최종윤(한국교원대학교 박사)

- I. 들어가며
- II. 문학적 관점에서 영아 그림책의 선정 방법
- III. 영아 그림책의 미학적성
- IV. 나오며

## I. 들어가며

근래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영유아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다. 그럼에도 영유아를 위한 출판 시장은 양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2021년 출판시장 통계를 보면, 유아동 분야는 발행 종수가 2019년 7,337종에서 2020년 7,641종으로 전년 대비 4.1%가 증가하였다.<sup>1)</sup> 2020년 출판 시장 전체의 발행 종수는 81,715종에서 76,724종으로 6.1% 감소하였음을 감안하면, 영유아 출판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에 기인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사고 발달 및 언어 발달을 위해 기꺼이 영유아 그림책을 구매한다. ‘북 스타트(Book-start)’ 운동 등 사회적으로도 영유아들의 독서를 장려한다.<sup>2)</sup> 그림책을 통해 영유아를 교육하려는 가정 및 사회의 욕망은 영유아 그림책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영유아 그림책의 양적 확산이 질적 수준까지 담보하지 않는다. 출판사의 상업적 기획 속에 영유아 그림책 출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나, 이들 도서의 미학적성 및 교육성에는 의문부호가 따라다닌다. 시중에 출판된 영유아 그림책을 보면 성인 작가의 교조적 목소리가 그대로 드러난 작품, 초기 문해력 교육을 내세워 기계적인 문자 주입에 치중한 작품, 영유아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어휘를 남용하는 작품, 플롯의 정합성을 갖추지 못한 작품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영유아 그림책을 선정할 때 교육적 목적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 작품의 문학적성이나 영유아가 느끼는 정서를 고려하기보다 교육적으로 어떤 효용성이 있는가를 따지며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스테디셀러로 널리 알려진 작품을 구매하거나 출판사의 기획으로 패키지로 판매되는 작품을 구매한다.

이러한 영유아 독서 문화의 기저에는 영유아 그림책에 대한 편견이 자리한다. 영유아 그림책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KPIPA 출판산업 동향(2020하반기)』, 2021, 48-52쪽.

2) 북 스타트 운동은 ‘인생을 책으로 시작하자’는 기치 아래 영유아들에게 도서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독서운동이자 육아지원운동으로 1992년 영국에서 전직 교사 웬디 쿨링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도서관에서 가정에 도서를 제공하면서 영유아들이 도서와 친해지고 부모와 함께 독서하며 애착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김정희 외, 「북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자의 인식과 경험」,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권 4호, 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16, 220쪽.

을 교육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만 한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유아 그림책에 대한 연구는 교육적 관점을 앞세워 그것이 영유아의 언어 발달 및 사고 발달에 어떠한 효용성이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판단하는 데 치중하였다. 물론 영유아 그림책이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이자 방법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영유아 그림책은 그 자체로 미학성을 갖춘 예술이며 문학이다.<sup>3)</sup> 영유아 그림책은 언어 발달뿐 아니라, 영유아의 문학 능력 및 서사 능력을 함양하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영유아 그림책이 어떠한 미학성을 갖고 그것이 영유아들의 문학적 체험으로 어떻게 나아가는가에 대한 학술적 탐구가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 그림책의 미학성이 영유아 그림책 선정의 한 준거로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영아 그림책의 경우 유아 그림책에 비해 연구 성과가 더욱 미진한 형편이다. 영아 그림책은 영아들의 인지적 수준이나 집중력 등을 고려하여 짧은 호흡의 내용과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된다. 그렇다보니, 영아 그림책은 예술 작품이기보다 교육적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욱 강했다. 영아 그림책 연구는 부모 혹은 교사가 영아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언어 및 사회성이 발달하는가, 효과적인 교육 방안은 무엇인가 등을 탐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상대적으로 영유아 그림책의 미학성을 평가하고 그것이 영아에게 주는 문학적 체험을 탐구하는 연구는 소략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학교육 관점에서 영아 그림책의 미학성을 분석하고 그 문학교육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먼저 어떠한 관점에서 영아 그림책 선정 준거를 탐색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 우리나라에 출판된 영아 그림책 중 미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작품들을 분석하고 그 작품들이 영아들에게 어떠한 문학적 체험을 제공하는지 탐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영아 그림책의 미학성을 탐구하여 문학적 관점에서 영아 그림책 선정 준거를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다.

## II. 문학적 관점에서 영아 그림책의 선정 방법

영아 그림책은 영아를 위해 창작된 그림책을 뜻한다. 발달 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의 발달은 여덟 단계로 구분된다.<sup>4)</sup> 이 중 영아기는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생후부터 만 2세 정도를 포함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영아들의 인지 발달을 위해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촉각적 자극이 필요하며 특히 언어적으로 타자와 상호작용하는 경험이 요구된다. 언어 능력은 의사소통 및 사고의 도구이자 타자와의 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능력이다. 영아들의 언어적 수준과 인지 수준에 적절하게 창작된 그림책이 영아 그림책이다.

영아 그림책은 영아들이 처음 경험하는 언어 매체이자 문학적 매체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영아 그림책은 주변의 사물과 사람들의 특성, 그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며 영아들은 영아 그림책을 통해 세상을 간접 경험할 뿐 아니라, 기호계에 입문하면서 사물을 기호로 표상화하는 기호성을 습득하게 된다. 더욱이 영아들은 영유아 그림책을 통해 서사적 사고를 함양한다.<sup>5)</sup> 따라서 영아 그림책은 영아들에게 최초로 언어적 경험, 문학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

3) 그림책의 분류 기준 및 분류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내용 면에서 보면 문학적성을 강조한 그림책과 정보성을 강조한 그림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영아 그림책에도 이러한 분류가 적용될 수 있다. 그중 문학적성을 지닌 영아 그림책은 영아들의 언어 발달 및 인지 발달에 기여할 뿐 아니라 그들의 상상력을 세련하고 감성을 기르며 세계의 총체적 이해를 견인한다. 본고에서는 문학적성을 지닌 영아 그림책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한다.

4) 1. 태내기: 수정~출생, 2. 영아기: 생후~만 2세를 포함하는 시기, 3. 아동 초기: 만 3세~초등학교 저학년, 4. 아동 중기 및 후기: 초등학교 고학년~사춘기 전, 5. 청소년기: 중학교~성인이 되기 전, 6. 성인 초기: 만 21세~30세 포함, 7. 성인 중기: 만 31세~60세, 8. 성인 후기: 만 61세 이후. 광금주, 『발달심리학』, 학지사, 2016, 21-22쪽.

서 의의가 크다.

문제는 좋은 영아 그림책을 선정하여 영아들에게 제공하는 일이다. 출판 시장에서는 영아 그림책이 무수히 쏟아진다. 이 작품들을 모두 영아들에게 읽힐 수는 없다. 따라서 학술적으로, 비평적으로 좋은 영아 그림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야 부모나 교사들을 통해 질 높은 영아 그림책을 영아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sup>6)</sup> 지금까지 영아 그림책 선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언어교육적 관점을 앞세워 실행되었다.

한 학술 담론에서는 영아에게 적절한 그림책은 그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를 대상으로 하며 단순하고 정확한 개념을 제공하며 서사 전개가 예측 가능해야 하며 등장인물은 영아들에게 친숙하면서 생동감 있는 인물인 그림책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sup>7)</sup> 혹은 영아들은 주변 세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므로 야생동물보다는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고양이나 강아지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물이나 사물을 소재로 친근한 내용을 담은 그림책이 효과적이라는 논의도 있다.<sup>8)</sup>

이러한 연구들은 영아들의 인지 발달 수준에 근거하여 영아 그림책의 준거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으로 도출된 일반적 준거에 불과하다. 저러한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영아들의 관심을 끄는 작품, 영아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작품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에 경험적으로 영아들에게 적절한 그림책을 탐색한 연구가 있었다.<sup>9)</sup>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영아의 생활과 친숙한 소재를 분명하게 반영한 작품, 매력적인 그림, 운율이 있는 작품, 반복이 있고 예측 가능한 작품, 유능한 독자로 자랄 수 있는 흥미로운 구성이 포함된 작품 등을 영아 그림책 선정 준거로 도출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6개월 간 주 2회 총 51회에 걸쳐 2세 영아 세 명의 책읽기 및 관련 놀이 행위를 분석한 뒤, 일반적인 기준은 2세 영아들의 개별적 흥미를 고려한 도서 선정의 특성을 전혀 설명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실제 현상을 보면 영아들에게 그들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절한 그림책이 존재할 수 있음을 논의한 것이다.

영아 그림책 선정 준거를 마련하는 학문적 시도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영아들의 인지 발달에 적절한 그림책이 곧 좋은 영아 그림책이라 하기 힘들다. 좋은 그림책이라면 그에 더하여 미학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영아 그림책의 미학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문학적 관점에서 좋은 작품에 대한 기준은 비평적 판단에 귀속된다. 즉 규정적 판단에 기반한 확실성으로 논의할 수 없다. 일례로 ‘삼각형의 합은 180도이다’라는 논리적 필연성을 지닌 명제는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명제는 삼각형이란 개념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칸트 철학의 관점에 따르면 규정적 판단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비평적 판단은 규정적 판단과 달리,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연역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 문학 작품의 미적 특질은 미리 규정된 특정 명제가 아닌, 작품들의 일정한 경향 속에서 특정 작품이 발

5) 서사적 사고는 인간이 경험을 이해하는 사고 양식을 말한다. 인간은 경험한 사건을 이해 가능한 플롯으로 구성하면서 사건들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이때 서사적 사고가 작동하고 있다. 폴 리콕르, 제롬 브루너 등이 서사적 사고를 인간의 인식 기제로 판단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6)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빅3 온라인 서점인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및 그림책박물관, 북스타트의 추천 도서 1,826권 중 중복 추천된 그림책은 단 90권(16.43%)에 불과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구 및 비평 담론에 근간한 공신력 있는 영유아 그림책 선정 기준이 부재함을 보여준다. 정현희·김정준, 「국내 온라인 서점과 그림책 전문 웹사이트에서 추천하는 영아 그림책의 목록과 특징」, 『한국유아교육연구』 21(2), 한국유아교육학회, 2019, 31쪽.

7) 김정원·남규·서정숙, 『영아문학교육프로그램』, 창지사, 2011.

8) 이민경,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림책 읽어주기』, 양서원, 2004.

9) 이송은, 「2세 영아의 책에 대한 의미 탐색」,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24쪽.

현한 미적 특질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비평적 담론은 개별 작품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지 않고 그 개별적인 작품들이 어떤 미학적 원리를 드러내고 있는가를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작품의 방향성을 제시한다.<sup>10)</sup>

이러한 관점을 따르면, 미학적 측면에서 영아 그림책의 선정 준거는 일반적 원리로 기술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일례로 ‘영아들의 일상생활에 친숙한 소재를 담아야 한다’는 일반적 원리가 대다수 작품에서 좋은 영아 그림책의 준거로 합당하지만, 개별 사례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영아들의 일상생활에 거리가 있더라도 환상적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이 그들의 호기심을 끌고 상상력 세련 및 창의력 발달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혹은 일상생활의 친숙한 소재를 담은 영아 그림책이 상상력 없이 무미건조한 작품인 경우도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문학적 관점에서 영아 그림책의 선정 준거로서 미학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교육적 측면에서 영아 그림책의 선정 준거가 영아의 인지 및 언어 발달에 근거한 연역적 탐구를 통해 일반적 원리로 제시될 수 있는 것과 달리, 문학적/문학교육적 관점에서 영아 그림책의 선정 준거는 기 창작된 영아 그림책의 미적 특질을 분석하고 반성적으로 종합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미학성을 갖춘 영아 그림책이라 판단되는 개별 작품들의 특질을 상호 관계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문학적 관점에서 영아 그림책 선정 준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I. 영아 그림책의 미학적

#### 1. 감각성을 통한 미적 체험의 확장

영아 그림책은 영아들이 태어나 최초로 만나는 책이다. 영아들은 감각적 상호작용을 통해 대상을 인식한다. 즉 감각기관을 통해 세계에 대한 지각을 형성해가는 것이다. 따라서 영아에게 그림책 역시 텍스트를 담지한 도서이기보다 하나의 사물에 가깝다. 그림책을 처음 접할 때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가져가 물거나 뜯는 등 다른 사물과 동일하게 대한다. 부모 혹은 교사와 상호작용하며 그림책을 읽는 경험을 하면서 영아는 점차 그림책에 기호성이 담겨 있고 그 안의 글과 그림을 해석하며 감상할 수 있음을 자각한다.

따라서 영아 그림책은 감각성을 적극 활용하여 영아들의 이목을 끌고 그들의 감각적 체험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창작된다. 일반적으로 영아들은 문자 언어에 익숙하지 않다. 그들은 초기 문해력을 습득하지 않았음은 물론, 영아 그림책을 접하면서 발생적 문해(emergent literacy)를 아주 초보적 수준에서 형성해간다. 발생적 문해는 유아들이 특별한 교육 없이도 책을 읽는 척하거나 색연필로 굵적이고 창안적 글씨를 쓰는 등 읽거나 쓰기를 초기 문해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sup>11)</sup> 발생적 문해를 형성하지 못한 영아들에게 그림책은 텍스트가 아닌, 그저 종이로 된 물체일 따름이다. 그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영아 그림책의 형식에 다양한 물리적 요소가 가미되어 감각성을 강화한다.

프랑스 뻘니나땅(petit nathan) 출판사에서 영유아를 위해 만든 오감 놀이 책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이 책은 영아들이 만져보고 돌려보고 흔들며 책을 읽어보고 시각, 촉각, 청각 등의 감각을 자극하면서 오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그 시리즈 중 하나인 『보들보들 만져보자』는 촉감을 자극하는 책이다.<sup>12)</sup> 이 그림책은 스토리는 간단하다. 아기 늑대가 옷을 갈아입고

10) 제임스 그리블, 나병철 역, 『문학교육론』, 문예출판사, 1987, 111-133쪽.

11) 이경화 외, 『한글교육 길라잡이』, 미래엔, 2018, 37-38쪽.

12) Christel Denolle, Emiri Hayashi, 삼성출판사 편집, 『보들보들 만져보자(On s'habille?)』, 삼성출판사,

집 밖으로 나가 놀다 집에 들어온다. 그 서술도 간략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아기 늑대가 옷을 갈아입거나 신발을 신고 모자를 신을 때 그 옷이나 신발, 모자 등의 질감을 면, 타올지, 비닐, 벨벳, 털실 등의 소재로 표현하여 영아들이 손으로 만져보며 촉감을 느낄 수 있게 구성되었다.



그림 1. 『보들보들 만져보자』의 한 장면

『호기심꾸러기 아기 고양이(Curious kitten)』, 『자장자장 아기 토끼(Sleepy bunny)』 (Quarto 편집부 글, Alex Willmore 그림, 장미란 역, 웅진주니어, 2021) 역시 촉감을 강조한 그림책이다. 주인공인 아기 고양이나 아기 토끼의 귀가 보드라운 형질 소재로 되어 있어 영아들이 귀를 만지며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역시 서사는 단순하다. 일례로 『호기심꾸러기 아기 고양이』 아기 고양이가 호기심을 갖고 주변 사물을 대하며 하루를 보내다 엄마 품에 안긴다는 단순한 서사 전개를 보인다. 글 텍스트의 서술자가 고양이에게 무엇을 하는지 질문하면 다음 장면에서 그림 텍스트를 통해 아기 고양이의 행동을 보여주는 반복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보들보들 만져보자』가 장면마다 다른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된 것과 달리, 이 시리즈는 감각적 요소가 귀로 한정되어 있어 단조로운 감이 있다.



그림 2. 『호기심꾸러기 아기 고양이』의 한 장면

국내 영아 그림책 중 감각성을 강조한 그림책으로 『용감한 리리』(차보금 글, 이른봄 그림, 애플비, 2010)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놀이 그림책을 표방한 이 그림책은 다른 그림책과 달리 서사성 있는 플롯을 지니고 있다. 짹짹 거리고 뒹뒹뒹 걷는다고 업신여김을 받던 오리 리리가 위기 상황에서 용기를 발휘하여 친구들을 위기에서 구하고 인정받는다는 성장담의 형식을 취한다.

이 그림책은 오리의 부리 부분이 형견 재질로 입체적으로 제작되어 있다. 영아 독자는 그림책을 감상하면서 오리 리리의 부리를 손으로 만져볼 수 있다. 더욱이 부모나 교사가 오리 리리의 부리 부분에 손을 넣고 움직이면 짹짹 소리가 난다. 시각과 촉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적 체험을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림 3. 『용감한 리리』의 한 장면

특히 짹짹 소리가 나는 지점은 물리적 형식을 통한 감각적 체험이 서사의 전개와 유기적으로 결합된다. 리리가 짹짹 소리를 내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여우가 친구들을 위협하자 짹짹 소리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에서 손으로 부리를 움직여 소리를 낼 수 있다. 절정 부분인 후자의 상황에서는 더욱 크게 소리를 내면서 서사의 긴장감을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다. 물리적 형식으로부터 주어지는 감각성이 영아들의 일시적 관심을 끄는 것을 넘어서 서사에 몰입할 수 있는 형식적 장치로 활용되는 것이다. 영아들은 작품의 글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림 텍스트와 소리를 통해 서사의 진행을 감각적으로 체감하며 미학적 체험을 확장할 수 있다.

『용감한 리리』와 같이 부모나 교사가 손을 조작하여 인물의 부리나 입을 움직이게 만든 작품으로 『(뽕알뽕알) 아기 펭귄(Chit-chat little penguin)』(Helmi Verbakel 글, Sylvia Takken 그림, 장미란 역, 웅진주니어, 2021), 『(몽실몽실) 아기 곰(Chit-chat little bear)』(Helmi Verbakel 글, Sylvia Takken 그림, 장미란 역, 웅진주니어, 2021)가 있다. 이 두 작품 역시 촉감을 강조했고, 부모나 교사의 조작을 통해 움직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소리 효과는 주지 못한다.

전체적인 서사를 보면 『(뽕알뽕알) 아기 펭귄』은 펭귄과 물개의 대화, 『(몽실몽실) 아기 곰』은 곰과 토끼의 대화를 통해 진행된다. 그 내용을 보면 각각 펭귄의 생활 방식, 곰의 생활 방식을 묻고 답하다 마지막에 서로 안고 뽀뽀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플롯 자체가 정태적이고 대화 내용도 생물학적 지식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영아들이 지속적인 흥미를 갖고 작품을 감상하기는 힘들다.



그림 4. 『(몽실몽실) 아기 곰』의 한 장면

## 2. 텍스트의 구성 및 형식을 통한 서스펜스 효과

영아들은 신체에 기반하여 즉물적으로 세계를 경험한다. 그들은 언어적 사고에 입각하여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할 정도로 언어 및 사고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영아들은 8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대상 영속성(object permanence)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대상 영속성은 아동들이 타자나 물체가 시야에서 사라져도 여전히 존재함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sup>13)</sup> 대상 영속성이 형성되면서 영아들은 상징을 사용하는 능력이 발달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고도 사고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가 발달하고 대상들 간의 인과관계도 이해할 수 있다.

대상 영속성을 명확히 형성하지 않은 영아들이 그림책을 감상하면서 그 서사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영아 그림책에 단순한 사건이 계열화된다고 그 길이가 짧더라도 그러하다. 이에 영아 그림책은 분리된 장면들을 시간성이나 인과성에 따른 계열 없이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영아 그림책은 서사를 전개하기보다 사물에 대한 단편적 정보를 전달하거나 그림 텍스트에 어휘 수준의 글 텍스트를 연결하는 정도에 머무른다. 이 경우 영아 그림책은 문학성을 갖기보다 언어 발달을 위한 도구적 성격을 갖는다.

그림에도 영아 그림책 중에 영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서사를 구성하여 제시한 그림책이 존재한다. 이들 영아 그림책은 단편적인 언어 자료에 머무르지 않고 총체성을 지닌 문학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아들은 이러한 영아 그림책을 통해 문학의 관습에 입문하여 문학에 대한 감각을 갖고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문학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이러한 그림책에서는 서사가 완결될 때까지 영아들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서사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 장면마다 영아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거나 손으로 조작하거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서사적 장치가 있어야 영아들이 서사가 완결될 때까지 그림책에 대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영아 독자에게 질문을 던져 궁금증을 유발하고 다음 장면에서 그 답을 제시하는 형식의 영아 그림책을 들 수 있다. 『또 누구게』(최정선 글, 이해리 그림, 보림, 2017)의 경우, 이러한 형식을 취한 전형적인 영아 그림책이다. 이 작품에서는 그림 텍스트에 나무에 가려진 동물의 일부분이 제시되고 글 텍스트의 한 인물이 “누구게”를 외치면 다른 인물이 어떤 동물인가

13) 황희숙, 『아동발달의 이해와 교육』, 학지사, 2018.

를 추론하는 방식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영아들은 “누구게”라는 질문을 받고 그림 텍스트 속 동물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된다. 이 궁금증은 바로 다음 장면에서 바로 해결이 된다. 다음 장면에서 그림 텍스트 속 동물의 정체가 공개되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제시되는 것이다. 서사의 완결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기 힘든 영아들은 매 장면마다 “누구게”라는 질문을 받고 그 답을 생각하면서 작품에 지속적으로 몰입하게 된다. 그러면서 서사의 말미에는 강아지와 아이가 등장하면서 가을이 왔음을 이야기한다.



그림 5. 『또 누구게』의 서사 전개 방식

이러한 구성은 영아 독자에게 서스펜스 효과(suspense)를 불러일으킨다. 서스펜스는 서사에서 앞으로 어떤 사건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긴장감과 불안감을 말한다.<sup>14)</sup> 독자들은 다음 상황이나 결과를 궁금해 하고 예측하면서 작품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 서스펜스의 실현 방식에는 긴장감을 유발하는 상황을 설정하거나 예상치 못한 반전을 제기하거나 미스터리나 퍼즐을 제시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 누구게』와 같은 영아 그림책은 독자에게 미스터리로서 질문을 제시하여 독자가 그 답을 궁금해 하고 예측하면서 서사에 몰입하도록 구성되어

14) 에이브람스, 최상규 역, 『문학용어사전』, 1989, 216쪽.

있다. 다만 영아 독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다음 장면에서 바로 제시될 따름이다. 이러한 구성으로 인해 영아 독자들은 영아 그림책을 읽으며 발생적 문해력을 형성하고 인지를 발달시키는 물론, 초보적인 수준에서 문학적 체험을 하며 문학의 세계에 입문할 수 있다.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영아 그림책 중 하나인 『두드려 보아요(Knacka på!)』(Anna-Clara Tidholm, 사계절출판사, 2007) 역시 유사한 구성을 취한다. 이 작품의 첫 장면에는 푸른 나무 밑에 작은 집이 제시되고 서술자는 글 텍스트로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 들어가 보자는 제안한다. 다음 장면에는 파란 문이 그림 텍스트로 제시되어 있고 서술자는 글 텍스트를 통해 문을 두드려보길 권유한다. 한 페이지를 더 넘기면 문을 연 방안의 모습이 제시된다. 이어서 그 다음 문으로 넘어가고 그 방안의 모습이 제시되기를 반복한다.



그림 6. 『두드려 보아요』의 장면 연출

인간은 보통 글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며 그림책의 그림 텍스트 역시 그러한 눈의 움직임에 따르도록 관습화되어 있다. 그림 텍스트의 왼쪽에 있는 장면이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난 행동일 것을 가정하거나 인물이 오른쪽을 향해 있으면 그가 그 방향으로 전진한다고 생각한다.<sup>15)</sup>

『두드려 보아요』는 그와 다른 연출을 활용한다. 이 그림책에서 그림 텍스트는 진행 방향이 독자의 위치에서 그림책, 특히 그림 텍스트에 제시된 다음 문을 향해 진전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면, 삼차원적 공간으로 재현된 방 안의 상황이 제시되고, 그 방에

15) 페리 노들먼, 김상욱 역, 『그림책론』, 보림, 267쪽.

이어진 다음 문을 다시 두드리는 방식이다. 영아들은 여러 색의 방을 직접 손으로 두드리면서 감각성을 느끼며 상호작용하고, 그 문 뒤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해소해가면서 서사의 완결까지 작품에 몰입하게 된다.

플랩북 『곰의 편지(Postman bear)』 (Julia Donaldson 글, Axel Scheffler 그림) (비룡소, 2021) 역시 유사한 서사 전개 방식을 취한다. 『또 누구게』, 『두드리려 보아요』가 앞선 장면에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다음 장면에서 그 궁금증을 해소하였다면, 『곰의 편지』는 플랩을 활용한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곰은 세 통의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친구들에게 전달한다. 각 장면에서 그림 텍스트에는 곰이 찾아간 나무, 연못가의 집, 흙더미 아래 집 등이 등장하고 글 텍스트는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를 질문한다. 그리고 플랩을 넘기면 각각 도토리를 먹는 다람쥐, 신문을 읽는 개구리, 청소 중인 두더지가 등장한다. 글 텍스트가 제기한 의문을 플랩 속 그림이 해소해주는 것이다. 이후 곰이 전달한 편지 내용이 생일 초대이고 곰이 준비한 음식이 케이크이며 마침내 곰의 생일 파티에 온 사람들이 친구들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사가 완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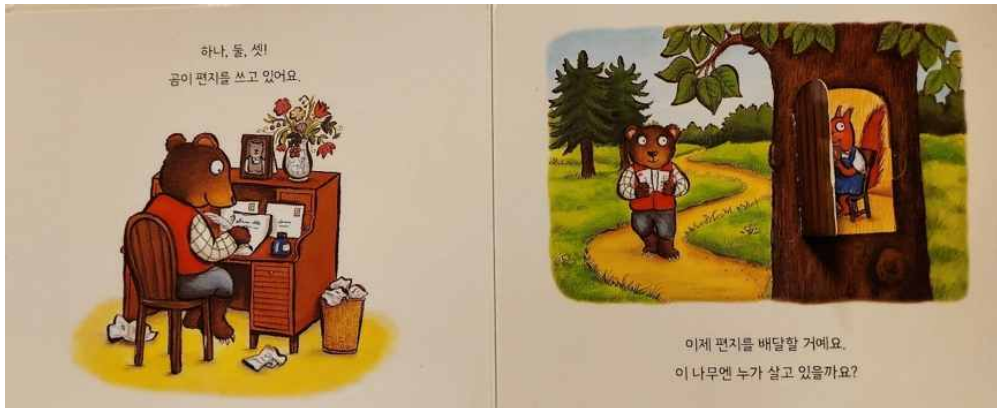


그림 7. 『곰의 편지』의 한 장면

『곰의 편지』에서는 플랩이 일종의 서스펜스(suspense)를 유발하는 장치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곰의 편지』는 영아 독자들에게 질문을 제기하여 그 질문을 해소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고, 손으로 조작하여 플랩을 열면 그 답이 제시되는 방법으로 영아들에게 서스펜스를 유발한다. 이러한 구성 역시 영아 독자들이 『곰의 편지』를 읽으면서 문학적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

### 3. 중복 말하기를 통한 주제의식의 심화

마리아 니콜라예바는 아동문학의 독자적 성격을 ‘중복 말하기’로 논의한 바 있다.<sup>16)</sup> 아동문학의 일차 독자가 아동이지만, 아동문학의 특성상 아동문학의 선정 및 독서에 관여하는 성인(부모, 교사, 사서, 비평가, 편집자 등)이 존재하여 그들 역시 내포적인 수신자로 고려하게 된다. 때로 성인 독자가 아동 교육과 무관하게 자신의 문학적 체험을 위해 아동문학을 감상하기도 한다. 이렇듯 아동문학의 독자가 아동 독자와 성인 독자로 중복적일 수 있으며 아동문학에는 그들을 향한 중복적인 말하기가 내재되어 있다.

영아 그림책 역시 기본적으로 영아를 향한 예술적 소통을 지향하지만 이중의 수신자가 존재

16) 마리아 니콜라예바, 조희숙 외 역, 『아동문학의 미학적 접근』, 교문사, 2009, 327-328쪽.

한다. 영아는 주체적으로 영아 그림책을 독서하기에 언어 발달이나 인지 발달이 충분하지 않다. 그들은 성인이 책을 읽어주거나 성인과 대화하는 등 성인과 상호작용 속에서 영아 그림책을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다. 또한 영아 그림책의 선정 및 구매 역시 성인의 몫이다. 따라서 영아 그림책의 작가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두 개의 코드를 통해 발화한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영아 그림책 중에는 이중적인 주제 의식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표면적으로는 영아가 지각할 수 있는 삶의 국면을 다루면서, 심층적으로는 그들이 성인이 되면서 통찰하고 체감할 삶의 이치나 자연의 원리를 담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심층적인 주제의식은 영아 그림책을 구매하고 영아 독자와 함께 상호작용하며 영아 그림책을 감상하는 성인 독자를 향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아 독자의 내면에 영아 그림책이 지향하는 주제의식이 담겨져 영아의 인격적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긋 안녕』(가애, 창비, 2021)은 인사놀이를 표방한 영아 그림책이다. 이 그림책의 내용은 간단하다. 갓 돋아난 풀잎부터 꽃, 나비, 고양이, 강아지, 구름, 나무, 눈사람 등 자연의 사물들이 그림책을 감상하는 영아 독자를 향해 인사를 건넨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 장면마다 “아가야, 안녕”이란 글 텍스트가 반복되며, ‘아가’에 실제 그림책을 읽는 영아 독자의 이름을 넣어 낭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절의 순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첫 장면에 이른 봄 파릇파릇하게 돋은 풀잎이 등장하고 꽃과 나비 등이 등장한 뒤, 강아지나 구름이 등장하는 그림 텍스트는 여름을 상징하는 파란 색채가 주가 된다. 나무와 나무에서 떨어지는 도토리나 눈사람의 인사는 가을을 상징하는 붉은 색채가 강조되며 이후 눈 오는 날의 별들이나 눈사람의 인사는 눈을 상징하는 하얀 색채가 중심적이다. 특히 겨울은 밤으로 표현되어 탄생과 죽음의 순환 구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다시 한 영아가 등장하여 모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들면 파릇파릇한 풀잎을 또 만난다. 즉 다시 봄이 되었음을 체감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영아 독자나 성인 독자가 자연의 순환적 구조를 체감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표면적으로는 『방긋 안녕』은 자연의 존재들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영아, 작품을 감상하는 영아 독자를 향해 인사를 건넨다는 내용이다. 그 심층에는 하루와 계절의 순환적 구조 속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소멸하는 자연의 섭리가 있고, 인간 역시 그 섭리 안에서 자연과 교섭하며 살아간다는 주제의식이 담겨 있다. 즉 중복 말하기를 통해 주제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그림 8. 『방긋 안녕』의 첫 장면

『준비됐나요?』(전금자, 웅진주니어, 2022) 역시 유사한 주제의식을 담는다. 이 작품은 앞 장면 글 텍스트에서 준비됐는가를 질문하면, 다음 장면에서 그림 텍스트로 그 답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전체적인 내용은 한 여자 영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봄을 맞아 꽃을 보고 여름에 물놀이를 하고 가을에 보물(열매)를 찾으려 밭을 밟고 놀고 겨울잠을 자는 것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전개는 계절의 순환성에 근간한 것이다. 그리고 말미에 그 영아는 친구들을 만날 준비를 마치고 유치원 버스를 타고 출발하게 된다. 계절의 순환을 거치면서 그 영아가 유치원에 갈 유아로 성장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준비됐나요?』 역시 중복말하기를 통해 계절의 순환과 인간의 성장이라는 심화된 주제의식을 전달한다. 『방긋 안녕』, 『준비됐나요?』 등은 영아 그림책이 짧은 분량과 간결한 문체, 쉬운 내용으로도 삶의 총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고 도저한 문학성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9. 『준비됐나요?』의 장면 구성

#### IV. 나오며

영아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영아 그림책을 선정하여 읽어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영아 그림책 관련 연구는 영아 그림책 독서 현상이나 교육적 실행에 관한 연구에 편중되었고, 상대적으로 영아 그림책이 미학적 및 문학적성을 다루는 이론적 연구는 빈약하였다. 영아 그림책은 언어 발달 및 인지 발달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영아 그림책은 그 자체로 미학적성을 지니고 있다. 영아 그림책 감상을 통해 영아는 문학적 체험을 하고 문학 관습에 입문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영아 그림책의 미학적성을 분석하였다. 후속 연구를 통해 영아 그림책이 갖는 미학적성과 그 문학교육적 방향이 구체화, 본격화되길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 〈문학교육 관점에서 바라본 영아 그림책의 미학성〉에 대한 토론문

진솔(광주교육대학교 강사)

이 논문은 문학교육 관점에서 영아 그림책의 미학성이 무엇인가를 논의하였습니다. 근래 그림책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뜨겁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영아 그림책에 대한 연구는 언어 교육이나 인지 교육의 측면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연구자께서는 영아 그림책 역시 하나의 문학이자 미학성을 갖춘 예술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개별 작품들의 분석을 기반으로 문학성 있는 영아 그림책의 판단 준거를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자의 견해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몇 가지 우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논문의 표제에는 문학교육 관점에서 영아 그림책의 미학성을 분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보면 교육적 관점, 문학교육적 관점, 문학적 관점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영아 그림책의 문학성/미학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심적인데, 그렇다면 문학적 관점에서 영아 그림책을 연구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를 두고 표제에 문학교육적 관점이라고 기술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구자께서는 영아 그림책에 대한 교육적 관점이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문학교육 관점 역시 큰 틀에서는 교육적 관점의 일환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을 여쭙습니다.

둘째, 이 논문에서는 문학적 관점에서 영아 그림책의 선정 방법을 논의하면서 “일반적 원리를 도출하지 않고 개별적인 작품들이 어떤 미학적 원리를 드러내고 있는가를 제시함”으로써 영아 그림책 선정의 준거를 제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영아 그림책도 문학이란 범주에 속하므로 선언적 기술을 넘어 작품들 간의 관계에서 도출된 미적 특질을 기반으로 개별 작품을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연구 목적을 생각할 때 영아 그림책을 소비하고 감상하는 부모나 교사, 사서 등을 위해 영아 그림책 선정의 원리가 명료하게 도출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개별 작품들의 미학성을 분석한 결과가 중심적인데, 여기서 어떻게 영아 그림책 선정의 일반적 원리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이 논문에서 다루는 작품의 선정 근거를 여쭙습니다. 연구자께서는 영아 그림책 중 문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작품을 선정하고 그 특질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작품들을 보면 우리나라 작품, 외국 작품이 혼재되어 있고 창작 시기나 특징 면에서도 일정한 경향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연구자께서 비평 활동을 하시니 좋은 작품을 선정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작품 선정 과정에 대한 고민들을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논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께서 제시한 영아 그림책의 미학적 특질들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구자께서 제시한 세 가지 미학적 특질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별 작품 차원에서 보면 한 작품 안에 여러 특질들이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플랩북인 『곰의 편지』는 플랩을 손으로 조작하고 넘긴다는 점에서 감각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됐나요?』는 순환성이란 주제의식을 전하면서도 질문을 던지고 다음 장면에서 그 답이

되는 그림 이미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형식 면에서 서스펜스도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연구자  
께서 제시한 미학적 특질 간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듯한데,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논문을 읽으면서 영아 그림책의 미학성을 고민하고 문학적/문학교육적 관점에서 영아 그  
림책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미리 공부할 기회를 주심에 연구자와 학회 관계자분들  
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둔하여 논문을 오독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해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초 이음교육을 위한 ‘학교’ 그림책 내용 분석: 인물을 중심으로

김호(경인교육대학교 교수), 김현경(경인교육대학교 강사)

- I. 머리말
- II. 도움을 주고받는 비밀 친구
- III. 유아를 지지하는 가족
- IV. 유아를 존중하는 선생님
- V. 안정감을 주는 친구
- VI. 관심과 응원을 보내는 동네 이웃
- VII. 맺음말

## I. 머리말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일반적으로 인간의 ‘발달’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와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삶은 시기별로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흘러가며, 우리의 성장도 지속된다. 다만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인간은 생활의 형태와 맥락이 변화되는 전이(transition)를 종종 겪는다.<sup>1)</sup> 특히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경험하는 것은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진학 이전과 이후 시기의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측면의 발달이 급격하게 달라지지 않는다. 일곱 살 유아의 12월 31일과 여덟 살 유아의 1월 1일은 단 하루 차이이며, 유아가 하루의 시간을 지나 갑자기 ‘학생’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사이에는 물리적인 환경이나 일과 시간, 학습의 내용, 인간관계 등에 있어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초기에 다수의 유아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불안감이 지속되어 적응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유아가 등교를 회피하는 것을 ‘학교 공포증(school phobia)’ 또는 ‘등교 거부증(school refusal)’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한다.<sup>2)</sup>

이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후의 유아가 성공적인 전이를 경험하도록 연계 교육의 중요성과

1) Marguerite & Linda, 2015, 전유영, 이은영, 「그림책에 나타난 초등학교 1학년의 적응 분석」, 『유아교육연구』 39권 4호, 한국유아교육학회, 2019. 30쪽에서 재인용.

2) 경북매일 인터넷 신문 > 오피니언 > 칼럼 > 시사포커스 > “새 학기가 두려운 아이”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952192>

등록일 2023.03.05 18:00 게재일 2023.03.06

필요성이 강조되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계 교육은 주로 문서상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교육과정 연계에 머무르고 있어, 유아 경험의 연속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준비도(readiness)나 학교화(schoolification)의 개념 중심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이처럼 연계교육이 교육과정 연계에 국한되거나 이벤트식으로 이루어지는 현실, 영유아의 주체적인 참여 부족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김호 외의 연구에서는 ‘이음교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린다: “이음교육이란, 유아의 행복한 삶과 건강과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각 기관과 교육공동체가 학습자의 이전과 이후의 경험이 연령과 기관에 따라 단절되지 않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적인 관계를 통하여 실천하는 교육을 말한다.”<sup>4)</sup>

이러한 이음 교육은 네 가지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계속성: 영아기부터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교육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좋은 교육의 지속성과 동일한 가치와 원리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둘째, 연결성: 학교급이나 교육과정 사이가 전체적, 거시적인 접근의 관점에서 연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유아와 유아가 연결되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각 교육과정이 연결되고, 놀이와 배움에 대한 관점과 시각이 연결되는 것이다.

셋째, 협력성: 이음교육의 주체들이 협력적인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음교육의 주체라 함은 기관과 가정, 지역사회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다양성: 기관의 위계에 따라 특정 기관의 원리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아와 기관, 학급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네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이음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유아’이다. 즉, 성인의 관점에서 유아를 준비시키거나 환경을 마련하는 역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관점에서 유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유아가 주체적으로 이음교육을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sup>5)</sup>

한편, 초등학교로의 전이 시기에 있는 유아에게 초등학교 적응을 돕는 방안으로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경우가 많다.<sup>6)</sup> 그림책의 가치는 매우 다양하게 알려져 있는데, 특히 유아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글과 그림이 유아의 정서와 상상력에 호소하기 때문에 유아가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준다<sup>7)</sup>는 점에서 유초 이음교육의 차원에서 그림책은 훌륭한 매개체가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를 주제로 한 그림책의 인물 특성을 분석하여 유아의 학교 입학의 경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유초 이음교육이 학교 교육을 위한 준비도나 수동적인 의미인 ‘적응’으로서보다는, 유아의 행복한 삶과 성장에 기대감을 갖고 모든 교육공동체가 동행하는 교육의 과정으로서<sup>8)</sup> 접근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 및

3) 김호, 장혜진, 「해외 유보 및 유초 연계의 방향과 지원 사례 분석을 통한 이음교육 시사점 탐색」, 『교육논총』 42권 4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2022, 246쪽.

4) 김호, 김연진, 김택수, 김현경, 노현애, 서은총, 이성주, 장원호, 장혜진, 최은영, 김민정, 이민진, 이하영, 장슬아, 조단비, 『개정 누리과정에 기반한 유보, 유초 이음교육 지원 자료 최종보고서』, 교육부, 2022, 17쪽.

5) 김호, 김연진, 김택수, 김현경, 노현애, 서은총, 이성주, 장원호, 장혜진, 최은영, 김민정, 이민진, 이하영, 장슬아, 조단비, 『개정 누리과정에 기반한 유보, 유초 이음교육 지원 자료 최종보고서』, 교육부, 2022, 46쪽.

6) 전유영, 이은영, 「그림책에 나타난 초등학교 1학년의 적응 분석」, 『유아교육연구』 39권 4호, 한국유아교육학회, 2019, 331쪽.

7) 김현희, 박상희, 『유아문학교육』, 학지사, 1993, 121쪽.

8) 김호, 김연진, 김택수, 김현경, 노현애, 서은총, 이성주, 장원호, 장혜진, 최은영, 김민정, 이민진, 이하영, 장슬아, 조단비, 『개정 누리과정에 기반한 유보, 유초 이음교육 지원 자료 최종보고서』, 교육부, 2022, 46쪽.

그림책 창작자와 출판사 편집자에게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학교’ 그림책의 인물 특성은 이야기 속 유아의 학교 입학 경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2.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초등학교 입학의 주제를 다룬 그림책 중에서 1학년 유아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다. 먼저, 인터넷 서점과 도서관에서 ‘학교’, ‘1학년’ 등의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중에서 품질/절판인 그림책과 초등학교 입학이 아닌 다른 학년(재학생)의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 동물이거나 사물(학교)이 주인공인 그림책, 플롯 없이 학교에 대한 지식 정보가 나열된 정보책을 제외하고 다음 9권의 그림책을 분석 대상 그림책으로 정하였다.

<표 1> 분석 대상 그림책 목록

번호	책 제목	글 작가	그림 작가	출판사	출판 년도
1	1학년이 나가신다!	후쿠다 이와오	후쿠다 이와오	미세기	2012
2	난 학교 가기 싫어	로렌 차일드	로렌 차일드	국민서관	2003
3	은수가 즐거운 학교에 가요	김혜란	윤상희	브레멘플 리스	2017
4	처음 학교 가는 날	제인 고드윈	안나 위커	과당새	2014
5	파란 캥거루야, 학교가자!	엠마 클라크	엠마 클라크	엔이키즈	2015
6	학교 가기 조마조마	어린이 통합교과 연구회	홍미혜	상상의집	2012
7	학교 가는 날	송언	김동수	보림	2011
8	학교 처음 가는 날	김하루	배현주	국민서관	2012
9	학교는 재미있어	디디에 레비	토마 바이스	교학사	2010

###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교’ 그림책에 유아의 학교 입학 경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학 형식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여 그림책을 분석하였다. 문학 형식적 접근 방법이란, 문학 작품의 형식과 작품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학 형식적 접근에서 분석되는 문학적 구성요소 중에서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그림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라는 두 매체가 서로 결합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특성을 지니므로,<sup>9)</sup> 그림책의 주요 텍스트인 글, 그림과 주변 텍스트인 페리 텍스트도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9) 현은자, 김세희, 『그림책의 이해 I』, 사계절, 2005, 17쪽.

## II. 도움을 주고받는 비밀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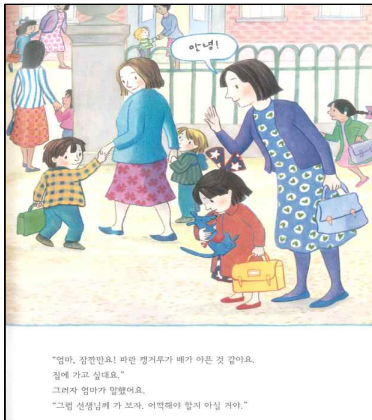
9권의 그림책에는 모두 초등학교 입학 앞둔 유아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흥미롭게도, 그중 5권의 그림책에서 주인공 유아의 비밀 친구가 등장한다.

3권의 그림책에 등장하는 비밀 친구는 빨간 색연필과 또또라는 이름의 여자 인형, 파란 캥거루로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로서 등장한다. 이들은 말을 하거나 생각, 감정을 지니고 있고, 움직이거나 활동을 하는 등 판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림 1] 『학교 가기 조마조마』의 한 장면

다른 1권의 그림책에서는 조마조마라는 이름의 망아지인데 주인공의 마음속에 살고 있어 실제 사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림책에서는 시각적으로 표현된다. 또 다른 1권의 그림책에는 소찰풍이라는 이름의 비밀 친구가 나타나는데, 소찰풍이는 그림책에 ‘투명하게’ 표현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캐릭터이지만 독자들은 주인공 옆에 항상 같이 있는 투명한 소찰풍이를 만날 수 있다.



[그림 2] 『파란 캥거루야, 학교가자!』의 한 장면

그림책에 등장하는 비밀 친구는 다양한 역할을 한다. 첫째, 비밀 친구는 주인공의 마음을 대변한다. <파란 캥거루야, 학교가자!>에서 주인공 릴리는 자신이 아니라 파란 캥거루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 하고, 학교에 가는 걸 겁내고, 학교에서 길을 잃을까봐 걱정한다고 가족들에게 말한다. 입학식 날에도 학교 정문 앞에서 파란 캥거루가 배가 아픈 것 같다며 집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 다행히 주인공 릴리는 친절하신 선생님의 인도와 다양한 활동을 하며 점차 안정감을 찾고 아주 재미있게 놀게 된다. 파란 캥거루는 줄곧 릴리를 지켜보지만, 릴리는 파란 캥거루를 잊고 하교할 정도로 학교의 즐거움에 금세 빠지게 된다. 결국 파란 캥거루도 릴리의 학교 생활을 지켜 보고 따라 하며 학교에 가는 걸 좋아하게 된다.



[그림 3] 『학교는 재미있어』의 한 장면

<학교는 재미있어>의 주인공 뽀미는 인형 또또에게 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은 무지무지 중요하다며 함께 학교에 가서 배우자고 말한다. 하지만 또또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뽀미에게 화를 내고 집에 남아 텔레비전을 보겠다고 한다. 비록 뽀미가 또또에게 조금 겁이 난다고, 그래서 제발 같이 가 달라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친구들과 학교에 들어

간 뽀미는 신나게 학교생활을 시작한다. 인형 또또는 1학년은 참 재미없겠다고 생각하지만 뽀미와 학생들을 보고 따라 하며 역시 학교생활의 즐거움에 푹 빠진다. 릴리와 뽀미는 학교 입학 앞두고 긴장된 모습을 감출 수 없지만, 적어도 파란 캥거루 인형과 또또 인형보다 한층 더 성숙하고 능숙한 모습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4] 『은수가 즐거운 학교에 가요』의 한 장면  
 둘째, 비밀 친구는 주인공을 안심시키며 학교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은수가 즐거운 학교에 가요>에서 주인공 은수는 초등학교에 가는 것이 겁나지만, 차마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한다. 빨간 색연필은 그런 은수 앞에 폴짝 나와서 나랑 함께 학교에 가 보자고 제안한다. 은수가 빨간 색연필이 시키는 대로 가방을 메니 은수 몸이 떠올라 학교로 날아가게 된다. 빨간 색연필은 은수를 학교 곳곳으로 이끌며 긴장을 풀어주고, 은수가 뿌듯함을 느끼게 해준다. 시간이 흐르며 은수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학교를 탐험해 나가며, 빨간 색연필이 인도하기 전에 물레방아에 대해 능동적으로 다가가면서 다시 침대 위로 이동한다. 그리고 엄마에게 “저 빨리 학교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할 정도로 학교에 대한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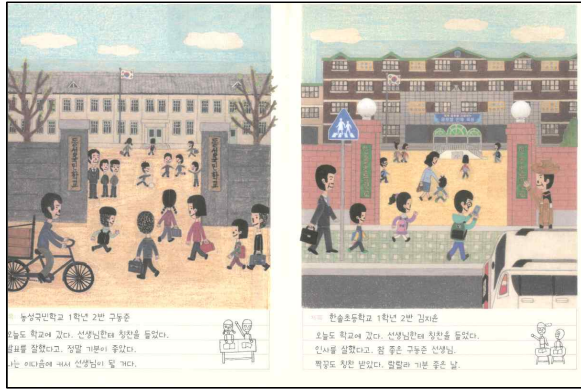
### III. 유아를 지지하는 가족

9권의 그림책 중 8권에서 주인공 유아를 지지하는 가족들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엄마, 아빠, 오빠와 형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모와 고모, 할머니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등장한다.

가족들이 주인공 유아를 지지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먼저, 가족들은 주인공 유아에게 관심을 갖고, 유아의 불안한 마음을 인정해 준다. 예를 들어, <은수가 즐거운 학교에 가요>에서 은수의 엄마는 은수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알아채고 선생님과 헤어지는 것이 싫을 수 있다며 은수 마음에 공감해 준다. <학교 가기 조마조마>에서 엄마는 잠이 안 온다는 서연이에게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그럴 것이라며 은수가 ‘조마조마’라는 마음속에 사는 망아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로, 가족들은 학교가 어떤 곳인지 안내하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준다. <은수가 즐거운 학교에 가요>에서 엄마는 초등학생이 되는 것은 신나는 일이라고 은수를 달래고, <파란 캥거루야, 학교 가자!>에서 엄마, 이모, 고모는 학교에 가면 재미난 일이 아주 많고, 학교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준다. <난 학교 가기 싫어>에서 오빠인 찰리는 학교에 가면 숫자 세는 법, 글자 쓰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편지를 쓰거나 책을 읽는 등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알려준다. 또, 점심을 혼자 먹기 싫다는 룰라에게 학교에 가면 친구들을 아주 많이 사귀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기도 한다. 셋째, 가족들은 주인공의 학교 입학 준비를 돕는다. 가족들은 학교에서 필요한 가방, 필통, 도시락통을 선물하기도 하고, 옷을 입고 신발을 신는 것을 돕는다. 또, <학교 가는 날>에서처럼 병원에서 검사를 받거나, 혼자 옷 입기, 옷 벗기, 옷 개기 연습을 하거나, 함께 책을 읽거나 숫자 세기 연습을 하기도 한다.

#### IV. 유아를 존중하는 선생님

분석 대상 그림책에서 선생님들은 대체로 따뜻하고 포용적인 이미지로 그려지며 유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학교 가는 날』의 한 장면

도 누릴 수 있다. 구동준과 김지윤은 마지막 장면에서 서로 만난다. 과거 구동준은 학교에서 선생님께 칭찬을 듣고 이다음에 커서 선생님이 될 거라고 다짐하며, 현재 김지윤 역시 학교에서 선생님께 칭찬을 듣고 선생님이 참 좋다고 일기를 썼는데, 그 선생님 성함이 바로 구동준 선생님이다. 과거의 구동준이 선생님의 꿈을 꾸며 성장하여 정말로 꿈을 이루었고, 현재의 초등학생인 지윤이 반의 담임 선생님이 된 것이다. 선생님과 학생의 초등학교 입학의 경험이 교차하며 세대 간의 이음과 교사와 학생 간의 이음을 아우른다. 특히 좋은 선생님의 본을 보고 자란 구동준이 교사의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지윤이에게도 좋은 선생님의 본을 보이는 모습은 이음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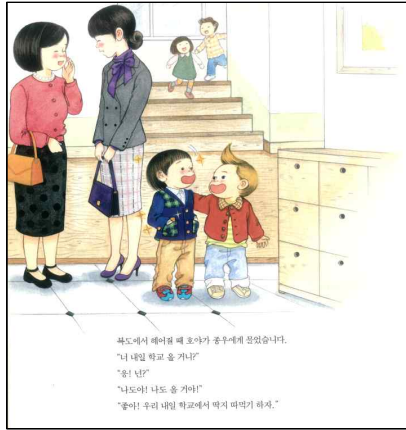
<파란 캥거루야, 학교 가자!>에서는 주인공 릴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릴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엄마, 이모, 고모가 릴리에게 줄 선물을 준비할 때, 릴리의 인형 친구인 파란 캥거루를 위한 선물도 잊지 않았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생님 역시 릴리의 인형 친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 선생님은 파란 캥거루에게 미소를 보이고, “파란 캥거루는 릴리 같은 친구가 있어서 좋겠다”고 말한다. 또, 릴리에게뿐만 아니라 파란 캥거루에게도 교실을 구경하기 좋은 창틀 자리를 마련해 주고, 하교하는 파란 캥거루에게 “너도 내일 올 거니?” 하고 다정하게 말을 걸기도 한다. 이런 선생님 덕분에 릴리뿐만 아니라 파란 캥거루도 빨리 아침이 되어 학교에 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선생님의 모습은 성인의 관점에서 유아에게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관점에서 유아의 개성과 요구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이음교육의 원리 중 특히 ‘다양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V. 안정감을 주는 친구

‘학교’ 그림책에서는 유치원이나 학교 친구들이 유아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재미있어>의 뽀미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이들은 뽀미의 유치원 친구들이다. 뽀미는 친구들을 보자 너무 기뻐서 두려움이 날아갔다고 표현한다.

친구로부터 안정감을 얻는 모습은 <학교 처음 가는 날>에서도 나타난다. 주인공 호야는 입학식 전날 악몽을 꿀 정도로 학교에 가기 싫어하며 불안감을 나타내는데 그런 호야에게 안정감을 주는 이는 단짝이 된 종우이다. 종우는 호야에게 씩씩하게 말도 걸고, 딱지도 나누어 준다.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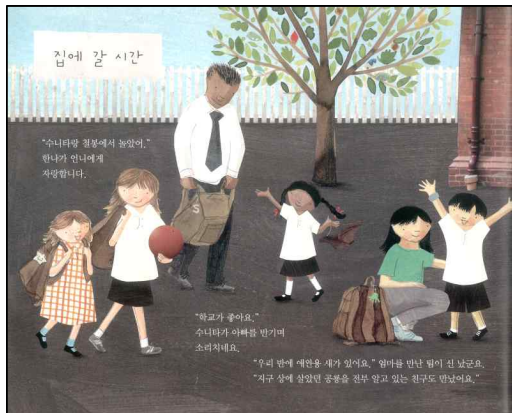


책도에서 헤어질 때 호야가 종우에게 말합니다.  
 "너 내일 학교 올 거야?"  
 "응! 난!"  
 "나도! 나도 올 거야!"  
 "좋아! 우리 내일 학교에서 딱지 딱지 하자."

야의 짝꿍 단비도 호야에게 사탕 두 개를 건넨다. 호야는 집에 가면서 주머니 속 딱지와 사탕을 만지작거리며 '빨리 내일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난 학교 가기 싫어>에서 롤라는 처음에 마지못해 학교에 가지만, 집에 갈 시간이 되자 '어떤 애'랑 같이 집으로 신나게 뛰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학교 가기 조마조마>에서도 서연이는 불안한 마음을 내내 가지고 있다가, 짝꿍 유리와 인사를 하며 유리의 조마조마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로소 안심한다.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에도 조마조마가 아닌 짝꿍 유리를 보며 용기를 내고, 화장실에 갈 때도 유리의 손을 잡고 간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두 유아

[그림 6] 『학교 처음 가는 날』의 조마조마가 그림책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한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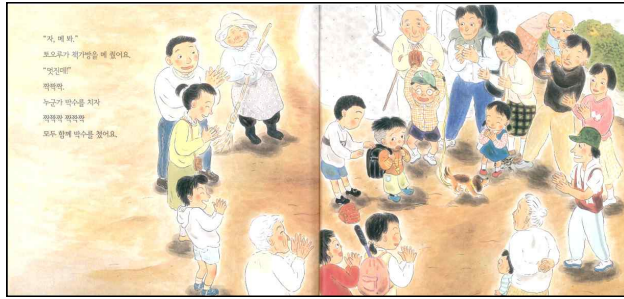
[그림 7] 『처음 학교 가는 날』의 한 장면

수니타, 조, 폴리의 다섯 명의 주인공이 학교에 갈 준비를 어떻게 하고, 학교에서 어떤 놀이를 하며 어떤 친구와 사귀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집에 갈 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각기 가족을 만나 오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한나는 수니타와 철봉에서 놀이한 이야기를, 팀은 공룡을 잘 아는 친구에 대해, 조는 함께 무당벌레를 따라갔던 친구 이야기를 한다. 학교생활에서 '친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림책 본문이 끝나고 뒷면지를 보면 우리 반 유아들 모두의 그림이 이름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역시, 학교에서 제일 중요하고 주체가 되어야 할 이들은 유아들이다.

마지막으로 <처음 학교 가는 날>을 살펴보면, 이 책의 주인공은 한 명이 아니라 무려 다섯 명의 유아들이다. 표지에서부터 다섯 명의 유아들이 제목이 쓰인 종이를 함께 들고 미소를 지으며 독자들을 정면에서 바라본다. 이들의 모습은 머리 모양이나 피부색, 키 등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표지를 넘겨 앞면지를 보면 주인공뿐만 아니라 우리 반 유아들과 선생님의 소지품이 이름과 함께 그려져 있다. 당연히 소지품의 모양새는 각기 천차만별이다. 어떤 면에서 학교 교육은 일률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책에서는 '다양성'이라는 이음교육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또한 팀, 한나,

## VI. 관심과 응원을 보내는 동네 이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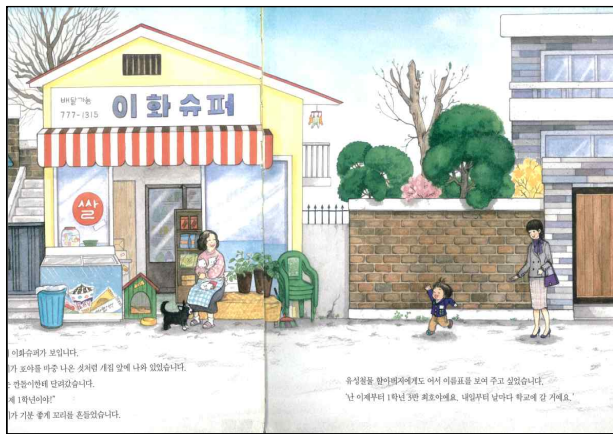
'학교' 그림책에서는 마을의 이웃들이 유아의 학교 입학에 관심을 갖고 응원을 보내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림 8] 『1학년이 나가신다!』의 한 장면

이름을 부른다. 드디어 켄이 가방을 찾자, 그곳을 지나던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켄의 초등학교 입학울 축하하고 응원한다.

<1학년이 나가신다!>에서 주인공 켄은 학교 책가방을 훈장처럼 여긴다. 그래서 할머니가 보내주신 책가방을 보자마자 가방을 메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동네를 걷는다. 그러던 중 켄이 가방을 잃어버리자, 동네 형들이 켄의 마음을 헤아려 가방을 찾기 위해 같이 이곳저곳을 살피는가 한다. 또, 가방을 발견한 동네 유치원생 꼬마인 유코는 켄의 가방임을 알아채고 높은 곳에 올라 켄의



[그림 9] 『학교 처음 가는 날』의 한 장면

이 책과 마찬가지로 <학교 처음 가는 날>에서도 이웃의 다정한 관심을 볼 수 있다. 철물점 할아버지는 주인공 호야에게 “입학식에 가는구나.”라고 관심을 보이며 비둘기 모이를 나눠준다. 또, 즐겁게 학교를 마치고 하교하는 호야는 이화슈퍼의 강아지 간돌이한테 달려가며 “난 이제 1학년이야!”하고 소리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주인공에게 동네 형, 동생과 아주머니, 할아버지 등 이웃이 관심을 보이고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축하하는 모습은 이음교육의 원리 중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해 준다.

## Ⅶ. 맺음말

그림책은 세상을 보여주는 창(窓)이며 유아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이다. 또, 독자들은 그림책의 주인공을 동일시하며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따라가며 간접 경험을 한다. 그래서 선행 연구들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유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그림책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sup>10)</sup>

본 연구에서는 ‘학교’ 그림책의 인물을 분석하여 주인공 유아가 학교 입학을 경험하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 그림책에 등장하는 인물은 비밀 친구, 가족, 선생님, 학교 친구, 동네 이웃의 다섯 가지로 나뉘었으며, 이들은 모두 주인공 유아의 학교 입학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그림책에 등장하는 비밀 친구들은 주인공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고, 주인공을 안심시키며 학교에 대해 안내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몇몇 비밀 친구들은

10) 노주희, 「초등학교 관련 그림책 읽기 활동이 유아의 초등학교 인식 및 적응 관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주인공 유아보다 더 학교에 가는 것을 걱정하거나 싫어하였으며, 주인공 유아가 학교생활을 하는 것을 모방하며 학교의 즐거움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보였다. 이것은 주인공 유아를 비밀 친구보다 더 유능하고 주도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그림책에는 주인공 유아의 부모뿐만 아니라 오빠, 형, 이모, 고모, 할머니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나타났다. 또, 가족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유아를 지지하였다. 주인공 유아에게 관심을 갖고 유아의 관점에서 솔직한 감정을 인정해 주었으며,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주인공 유아의 학교 입학 준비를 물심양면으로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림책 속 선생님은 대체로 따뜻하고 포용적인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유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생님은 유아의 인형 친구를 보고 나이에 맞지 않다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불안한 마음과 인형 친구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 인형 친구에게도 말을 걸기도 하였다. 선생님의 이러한 모습은 이음교육의 주체가 유아이고, 유아의 삶에서 이음이 연결되고 확장되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주인공 유아가 학교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가장 큰 안정감을 주는 존재는 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친숙한 유치원 친구를 학교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마주쳤을 때, 주인공 유아는 너무 기뻐 두려움이 날아갔다고 말하고, 또 새로운 친구와 놀잇감을 나누거나 함께 놀면서 학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래인 학교 친구들은 새로운 장소,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일과를 경험하며 주인공 유아와 똑같이 불안감과 기대감을 갖기에 동질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 입학을 경험하는 유아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그리기보다 현실적으로 정직하게 그려냄으로써, 유아를 준비시키는 성인의 관점이 아닌 ‘유아의 관점’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동네 이웃들이 주인공 유아에게 관심과 응원을 보내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음교육은 유아와 부모, 교사, 기관,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이루어서 ‘교육공동체’가 유아의 행복한 삶에 동행하는 교육의 과정이다.<sup>11)</sup> 따라서 동네 이웃들이 주인공 유아의 초등학교 입학에 축하하거나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모습은 이음교육의 협력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유아들이 어려움을 갖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고 한다. 하나는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가 서로 다름에서 오는 어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초등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어려움이다. 그림책은 이 두 가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 유아들은 유아교육 기관과는 다른 초등학교의 공간, 일과, 활동 모습을 담아낸 그림책을 읽으면서 초등학교에 관심을 갖고, 교사나 부모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를 간접 경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 학교나 선생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담은 그림책들은 유아들이 학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좀 더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학교생활에 임하도록 도울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학교의 적응이나 준비도 개념을 중심으로 한 연계 교육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유아의 경험과 삶을 중심으로 하고 유아가 주체적으로 교육의 경험을 이어나가는 이음교육의 관점에서 ‘학교’ 그림책의 인물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 그림책의 다른 문학 구성요소의 특성 즉, 플롯과 배경의 특성을 조사하여 어떤 문제가 주로 나타나고 문제의 해결 방법은 어떠한지, 학교의 시공간이 주인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를 권한다. 또한 실제로 ‘학교’ 그림책을 읽는 유아나 초등학생의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교육의

11) 김호, 김연진, 김택수, 김현경, 노현애, 서은총, 이성주, 장원호, 장혜진, 최은영, 김민정, 이민진, 이하영, 장슬아, 조단비, 『개정 누리과정에 기반한 유보, 유초 이음교육 지원 자료 최종보고서』, 교육부, 2022, 43쪽.

경험을 어떻게 이어가고 확장해 가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1. 자료

김호, 김연진, 김택수, 김현경, 노현애, 서은총, 이성주, 장원호, 장혜진, 최은영, 김민정, 이민진, 이하영, 장슬아, 조단비, 『개정 누리과정에 기반한 유·보, 유·초 이음교육 지원 자료 최종보고서』, 교육부, 2022.

경북매일 인터넷 신문 > 오피니언 > 칼럼 > 시사포커스> “새 학기가 두려운 아이”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952192>

등록일 2023.03.05 18:00 게재일 2023.03.06

### 2. 논문 및 단행본

김호, 장혜진, 「해외 유·보 및 유·초 연계의 방향과 지원 사례 분석을 통한 이음교육 시사점 탐색」, 『교육논총』 42권 4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2022.

김현희, 박상희, 『유아문학교육』, 학지사, 1993.

노주희, 「초등학교 관련 그림책 읽기 활동이 유아의 초등학교 인식 및 적응 관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전유영, 이은영, 「그림책에 나타난 초등학교 1학년의 적응 분석」, 『유아교육연구』 39권 4호, 한국유아교육학회, 2019.

현은자, 김세희, 『그림책의 이해 I』, 사계절, 2005.

## <유초 이음교육을 위한 ‘학교’ 그림책 내용 분석>에 대한 토론문

장원호(중앙대학교)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의 원만한 전이가 유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세계적으로 유초 연계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특히 OECD에서는 2014-2015년 정책 아젠다로 유초 연계를 제시하였는데, 현 정부에서도 12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간의 연계성을 강조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22; 장면립 외, 2014). 하지만 유아의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한 적응에 초점이 맞춰지며, 유아교육기관의 학교화(schoolification), 교육과정에 국한한 활동 등으로 연계교육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유아를 중심으로 교사, 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이음교육’이 교사 주도, 교육과정 중심 ‘연계교육’의 한계를 넘어 새롭게 등장하였다(김호 외, 2022). 2022년부터 시범 유아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음교육’이 유아의 행복한 삶과 행복 및 발달을 지원하는 실천교육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할 때이다.

발표자께서는 유초 이음교육과 유아 문학교육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현장에 적용해온 분으로서 교육기관의 경계를 넘어 유아가 중심인 ‘이음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여 주셨다.

우선 발표자께서는 이음교육의 주체로서 ‘유아’를 주목하시며, 유아의 관점에서 유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유아가 주체적으로 이음교육을 경험할 것을 강조하셨다. 또한 초등학교로의 원만한 전이를 위한 교육매체로써 그림책을 언급하셨다. 유아의 경험과 그림책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유아가 그림책을 통해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음교육을 위한 그림책의 활용 가치를 높게 생각하셨다.

그림책 속 등장인물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겪는 감정과 의사소통 방식을 조명하며, 성공적인 초등학교로의 전이에 ‘친구’, ‘가족’, ‘선생님’, ‘이웃’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함을 발견하셨다. 이는 다양성과 협력성을 강조하는 이음교육의 원리와의도 같은 맥락이다. 즉 교육주체들이 연결되어 경계가 무너지고 유아의 삶 속에서 배움이 확장되는 이음교육을 그림책 속 등장인물 중심의 장면과 줄거리 구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들뢰즈와 가타리가 주장하는 ‘리즘(rhizome)’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리즘은 뿌리줄기를 뜻하며 계단적 사고와 다르게 ‘-이기’를 거부하는 유연한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연계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며 등장한 이음교육, 그리고 그림책 속 등장인물이 ‘뿌리줄기’처럼 엉켜 화합하며 초등학교로의 삶으로 확장되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이연선 외, 2017). 이는 ‘초등학생이기’가 아닌 ‘초등학생으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이음교육은 리즘적 사고를 통해 탄생했고, 그림책은 리즘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음교육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매체가 될 수 있다.

이음교육을 위한 그림책의 활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보길 원하는 생각거리가 있어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

첫째, 그림책에서 초등학교에 대해 편견을 주는 장면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

문학인 그림책에는 허구적인 등장인물과 흥미를 갖게 하는 극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극적인 요소는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인 유아에게 초등학교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편견을 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정보 그림책을 제외 하였는데, 아동문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편견적인 요소가 있지 않은지 점검하는 작업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초등학교에서 원활한 적응을 위해 등장인물이 대처하는 자세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유아의 주체성이 이음교육의 핵심임을 고려해 볼 때 그림책에서 유아의 동일시 대상인 등장인물이 어떻게 학교생활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매체로써 그림책을 활용할 때 유아에게 직·간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 김연진, 김택수, 김현경, 노현애, 서은총, 이성주, 장원호, 장혜진, 최은영, 김민정, 이민진, 이하영, 장슬아, 조단비 (2022). 개정 누리과정에 기반한 유·보, 유·초 이음교육 지원 자료. 세종: 교육부.

대한민국정부 (2022). [https://www.opm.go.kr/\\_res/opm/etc/kukjungfile2022.pdf](https://www.opm.go.kr/_res/opm/etc/kukjungfile2022.pdf)에서 2023년 3월 19일 인출.

이연선, 이경화, 손유진, 김영연 (2017). 들뢰즈와 가타리를 통해 유아교육 읽기. 서울: 살림터.

장명립, 현주, 박균열, 이정옥, 하민경 (2014).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연계 강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